

겨자씨.

KWANGSUNG MUSTARD SEED MAGAZINE

2025
SUMMER
VOL.55

겨자씨 초대석

곽승현 위임목사 & 6개국서 온 외국인 교인, 한자리에!

“나그네 된 외국인 형제들,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Issues & Trend 영어의 벽, 어떻게 넘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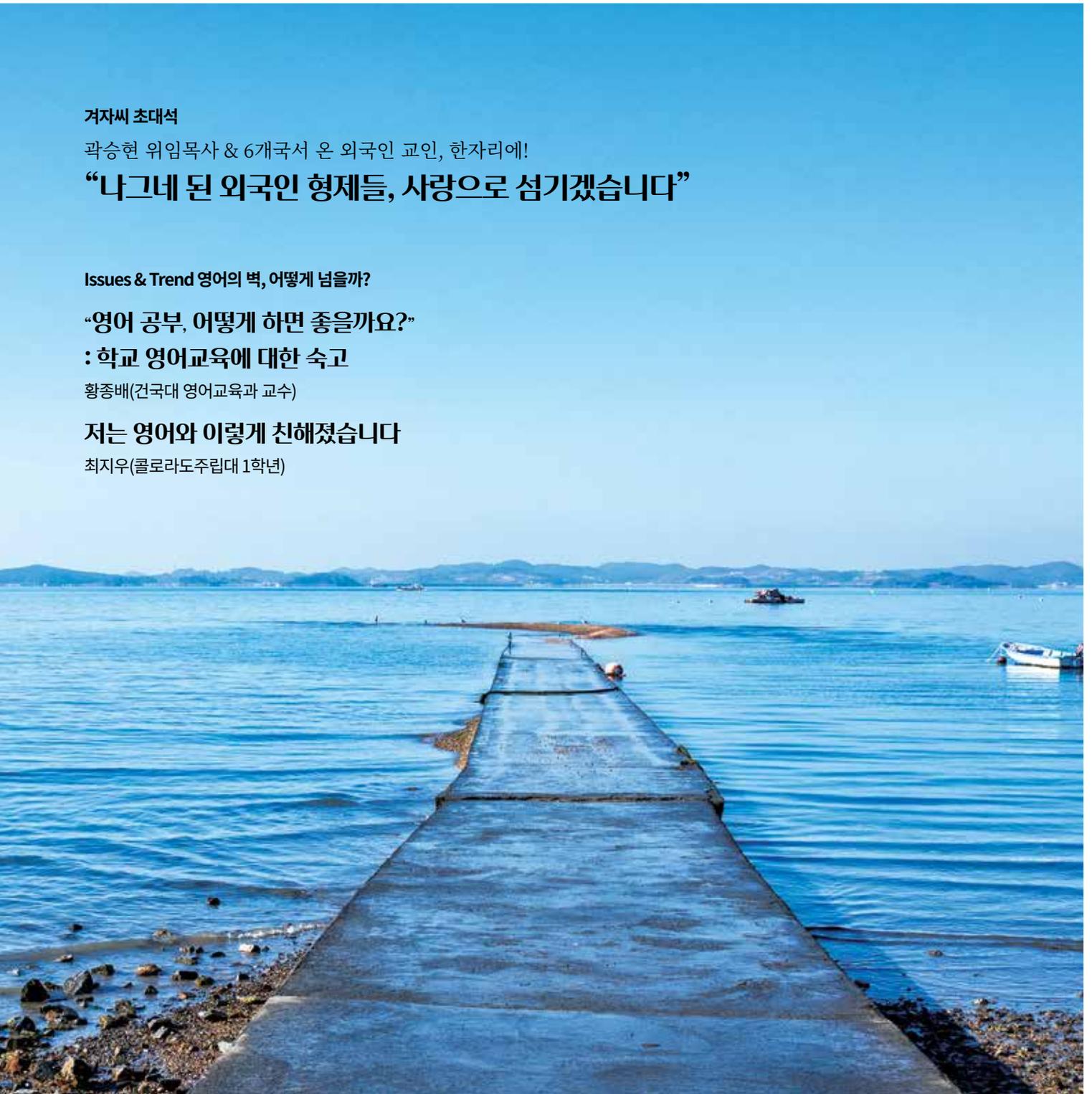
“영어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학교 영어교육에 대한 속고

황종배(건국대 영어교육과 교수)

저는 영어와 이렇게 친해졌습니다

최지우(콜로라도주립대 1학년)



풀꽃이 춤출 때

강원석



- 강원석 시인**
-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
 - 시집 『너에게 해 주고 싶은 말』 등 8권
 - 교보문고, 예스24 등 베스트셀러 1위
 - 가수 변진섭, 조성모, 윤복희 등 노래 40여 곡 작사

풀꽃이
언제 춤추는지 아니?

바람이 불어올 때
빗물이 적셔 줄 때
햇살이 비추일 때

아니야
네가 웃으며 쳐다볼 때

시집 『꽃잎을 적신 이슬을 모아』에 수록

사진 전영의 기자



Kwangsung Special
06 사냇가에 심은 나무 정혜덕 여름의 추억
08 겨자씨 초대석 광승현 위임목사 & 6개국서 온 외국인 교인, 한자리에! “나그네 된 외국인 형제들,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13 2025 선한 사마리아인 부활절 프로젝트 주님의 사랑 나를 통해 흐르리
14 선교지 소식 제이든 두바이, 아부다비 지구에서 복음 전파가 가장 이루어지지 않은 곳
16 희망 RUN 해병대교우회 김영철 집사 원활한 주차를 위한 ‘협조’의 손짓 ‘20년’

Issues & Trend
19 “영어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학교 영어교육에 대한 속고 ! 황종배
22 저는 영어와 이렇게 친해졌습니다 ! 최지우

꿈꾸는 다음세대
36 꿈담 영아부 0~36개월,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이야기
37 꿈담 초등4부 말씀과 함께 성장하는 초등4부 이야기
38 꿈담 중등부 중등부 임유현 · 정재윤 전도사님 인터뷰
40 꿈담 고등부 기도 모임 리더 학생 인터뷰
64 HOT ISSUE 김다빈 나를 알고, 너를 알고
66 Turn on love 조희성 드림 컨퍼런스,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 된 청년들의 뜨거움 외침

2025 특별기획
42 한국교회와 여성 ③ 임희국 교육받은 기독교 여성들의 생각과 실천 (1919년~1930년대)

C O N T E N T S

문화 & 참여마당
74 갤러리 지경희 당신의 정원
75 우리 교회 뮤지션 김계원 오르간, 웅장한 하나님의 노래
76 명수필 산책 정지용 「외포리의 국화」 솔바람 새소리
78 여행 이수인 대한민국 종합 박물관 - 강화도 강화산성
80 독자광장 박해자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혜주 권사님께
81 삶, 행복하다 박미경 머느리를 들이고 처음으로 맞이한 아버이날의 감회
82 광성의 추억 속으로 ③ 김진욱 정겨웠던 ‘작은도서관’

크로스로드

84 크로스로드 이해님 크로스로드 태국 단기선교 이야기
--



표지 사진
김영진
보령시 학성리 바다

겨자씨.

2025 SUMMER
VOL.55



거룩한빛광성교회 3대 목표·5대 비전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같은
바른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비전을 세웁니다



3대 목표



섬기는 교회

하나님을 섬기고 지역 사회를 섬기고
형제와 이웃을 섬기는 교회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고
미래 사회와 교회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평신도들이 주체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

5대 비전

지역사회
문화중심

고양파주
성시본부

한국교회
개혁모델

북한선교
전초기지

세계선교
중심센터

교회가 자리 잡은 지역 사회에서 좋은 문화를 보여주는 중심이 되고
고양·파주를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성시화한다.
나아가 한국교회의 개혁 모델이 되고
남한 최북단에서 북한 선교의 전초 기지로 활동하면서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된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여름의 추억

글 정혜덕(작가)



사진 전영의 기자

초등학생 시절, 7월에 들어서면 마음이 두근거렸다. 곧 여름방학을 맞이한다는 설렘이 정수리부터 발가락 끝까지 짜릿하게 퍼지곤 했다.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는 자유는 냉장고에서 막 꺼낸 수박처럼 시원하고 달콤했다. 선풍기를 켜고 드러누워 이 책 저 책 읽다가 배가 고프면 엄마가 썰 놓은 노란 옥수수나 포슬포슬한 감자를 먹었다. 따로 여름휴가를 다녀올 형편이 못 되었지만, 방바닥에서 뒹굴 뒹굴하기만 해도 만족스러웠다. 어린이의 여름은 평화로웠다.

청소년기에는 교회에서 여름을 보내다시피 했다. 나는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에 교회 중고등부를 다닌 청소년이었으므로 교회의 청소년 문화행사인 '문학의 밤' 준비에 진심이었다. 여름은 가을에 올릴 '문학의 밤'을 연습하는 특훈 기간이었다. 여름방학이 되면 아침을 먹자마자 부리나케 교회로 달려가서 중창과 콩트와 성극을 연습했다. 언니, 오빠들과 친구들, 후배들과 어울려 웃고 떠들며 연습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갔다. 덥지만 더운 줄 몰랐던 즐겁고 보람찬 계절이었다.

여름이 낭만이었던 시절은 이미 지나간 것일까. 어른이 된 뒤로도

시의 여름은 썩 반갑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다. 먹고 살기 위해 집을 나서면, 채 5분도 되지 않아 겨드랑이가 땀에 젖는다. 방학을 맞은 아이들의 삼시 세 끼를 챙기다 보면 가스불 앞에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다. 화장실 구석에서는 곰팡이가 존재감을 드러내고, 축축한 빨래에서는 불쾌한 냄새가 난다. 온종일 더위와 습기에 맞서느라 고생했는데 열대야로 밤잠마저 설친다. 전기 요금이 최고점을 찍고 내려온 뒤에야 여름은 비로소 떠날 준비를 한다.

기후 위기로 여름은 더 길고 독해졌다. 언제부터인가 여름의 설렘은 자취를 감췄고, 말 그대로 '견뎌내야 하는 계절'이 되어 버렸다. 더위에 놀리지 않으면서 일상을 살아내기가 쉽지 않다.

어쩌면 여름은 우리를 수행자로 만들기 위해 찾아왔는지도 모르겠다. 짜증 나고 피곤해도 묵묵히 주어진 삶을 감당하는 사람에게에는 정오의 커다란 느티나무 그늘 밑에서 느껴지는 청량한 기운이 깃든다. 이 서늘한 그늘 밑에서 잠시 쉬어 가라고, 앉아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라고 삶에 지친 친구에게 손을 내밀고 싶다.

이 계절 끝에서 새로운 여름의 추억이 방울방울 맺히기를 기원한다.

2025 SUMMER
Kwangsung Special

경계를 넘어, 하나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냐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 3:28>

곽승현 위임목사 & 6개국서 온 외국인 교인, 한자리에!

나그네 된 외국인 형제들,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글 김용기 기자 사진 전영의 기자



거룩한빛광성교회(위임목사 곽승현) 다문화선교위원회는 지난 5월 4일, 지저스아트홀에서 외국인 연합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 「The Worship of All Nations & The Table of Grace: 열방의 예배와 은혜의 식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날 외국인 연합예배에는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네팔, 필리핀, 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성도들이 참여하여 함께 찬양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 곽승현 위임목사와 대화를 나눈 외국인 형제자매들. 왼쪽부터 산킴망(미얀마) 형제, 빅토르(가나) 목사, 투(베트남) 자매, 뽀띠(캄보디아) 형제, 곽승현 위임목사, 티티마(태국) 자매, 고콜(네팔) 형제

국내 거주 외국인 선교사역, 든든한 기초 세워

곽승현 목사는 '아름다운 만남, 새로운 시작'을 외국인 목회의 중요한 가치로 삼고, 10개의 외국인 예배를 열어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드리기를 지향하고 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거주자는 약 280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 UN의 기준으로 이미 우리 사회는 다문화사회로 들어섰다. 특히 고양·파주·김포 지역에만 5만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며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산업 영역을 담당하며 활동하고 있다.

곽 목사는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열리고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 선교에 관심을 갖고 외국인 예배 확장을 선도하고 있다. 3년 전, 교회 새가족의 사업장을 방문해 예배를 인도하던 중 만났던 캄보디아 근로자를 계기로 외국인 선교사역에 눈을 돌려 캄보디아 예배를 거룩한빛광성교회에 설립했다. 이후 외국인 예배가 꾸준히 준비되어 현재는 태국, 베트남, 열방, 캄보디아, 미얀마와 네팔 공동체 등 6개 예배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

거룩한빛광성교회의 외국인 예배와 선교의 역사는 이미 2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교회가 신축으로 현재의 자리로 옮겨 오면서 태국과 베트남 예배가 설립되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그리고 주변의 외국인들이 모두 참여해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 영어예배가 10년 전부터 설립되었는데 현재는 열방예배로 명칭과 비전이 전환되어 외국인 예배의 산실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거룩한빛광성교회의 국내 외국인 선교사역은 교회 내 여러 선교부서와의 협력으로 그 빛을 더하고 있다. 국내 외국인 선교사역을 담당하는 다문화선교위원회를 주축으로 하고 전도위원회와 해외 파송 선교사를 지원하는 세계선교위원회의 협력 사역으로 선교의 열매를 맺고 있다.

더욱이 주일마다 교회에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설해 외국인 교우들에게 한국어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전도 목적으로도 활용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6개 외국인 예배의 시작 전과 후에 한국어 교육과정을 배치해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는 외국인 교우들이 효과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며 교제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교인을 위한 주일 한국어 교육과정

과정	시간	장소
초급 1단계(Beginner1)	매주 일요일 PM 1~2시	여전도회실
초급 2단계(Beginner2)	매주 일요일 PM 12~1시	안수집사회의실
중급 1단계(Intermediate)	매주 일요일 PM 12~1시	여전도회실
토픽(TOPIK)	매주 일요일 PM 1~2시	권사회실
한글찬송교실 (Korean Hymn Class) ※ 새신자 예배 알기 과정	매주 일요일 PM 12~1시	전도본부
한국어교육 기업체 출강 (Korean Language Program for Companies)	매주 월요일 PM 6~7시	기석무역
	매주 토요일 PM 6~7시	태건BF



« 태국, 베트남, 열방, 캄보디아, 미얀마, 네 팔 등 6개 외국인 예배팀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드린 첫 외국인 연합예배, 「The Worship of All Nations & The Table of Grace: 열방의 예배와 은혜의 식탁」. 사진은 예배 후 함께한 단체 사진

6개국 외국인 예배팀과의 진솔한 대화 “모든 성도가 나그네 된 외국인 섬김이 중요”

예배 후에 광승현 위임목사는 교회 내 6개국 외국인 예배팀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 성도들과 만나 식사를 같이하며 그들의 사역 현황과 기도 제목을 경청하고 교회의 역할과 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열방예배팀

빅토르(가나) 목사: ‘10개국 외국인 예배’를 위한 교회와 예배팀의 협력 방안은?

광승현 위임목사: ‘10개’라는 숫자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우리 교회가 인근에 와 있는 ‘나그네 된 자, 즉 외국인 형제자매들’을 환대하고 사랑으로 돌보며 그들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선포한 비전이다. 캄보디아 형제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 한글과 찬송가를 배우면서 캄보디아예배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하나의 기폭제가 되었다.

올해에는 미얀마 형제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고 네팔, 가나와 같은 다양한 문화권의 외국인들이 전도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방전도를 통해 복음을 듣고 우리 교회로 나오고 있다. 다문화 사역은 어떤 특정한 부서만의 열심으로 되는 사역이 아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외국인 형제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새롭게 세워진 다문화선교위원회가 주축이 되고, 전도위원회, 그리고 세계사화선교위원회 등이 연계해 보다 더 세밀하게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어 마침내 복음으로 제자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열방예배는 주일 오후 1시부터 드림교육관 1동에서 드린다.

태국예배팀

티티마 성도: 태국인 예배 부흥과 신생 외국인 예배를 위한 교회의 준비는?

광승현 위임목사: 태국인 예배가 20주년을 맞이한 것은 우리 교회의 자랑이다. 여기에는 그만큼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무엇보다 태국의 형제자매들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이광일·황경희 선교사님과 뒤에서 음으로 양으로 함께 힘을 다해 봉사하시는 분들의 덕분이다.

태국예배가 20년 동안 한결같이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태국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다. 그렇기에 이제 막 시작하는 여러 외국인 예배 부흥의 기초석도 그 나라와 그 나라 형제들을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이 땅에 나그네로 온 이들을 향한 사랑이 우리 성도들 마음에 부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태국예배는 주일 오후 2시 30분에 비전센터 3동 외국인예배실에서 드린다.



베트남예배팀(결혼이민자 중심)

투 성도: 한국인 남편과의 신앙생활 프로그램과 외국인-한국인 교제 활성화 방안은?

광승현 위임목사: 우리 교회에는 부부가 함께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이 있다.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부부학교가 있다. 하지만 외국인을 염두하고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어서 외국인 부부가 참가하기엔 무리가 되는 부분이 있다. 앞으로 외국인 형제와 자매가 점점 많아지고 그들의 원함이 있다면 가정사역위원회 차원에서 다문화가정, 특히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를 열어도 좋겠다.

그리고 아직은 우리 교회 성도들도 외국인에 대한 낯설고 어색함이 있다. 이번엔 처음 열었던 외국인 연합예배를 다양하게 기획해서 우리 교회 내에 있는 다문화 형제자매들과 지속적인 접촉점을 갖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매년 7월에 열리는 세계선교주간에 다문화 형제자매들과 함께 드리는 연합예배를 열어 신앙심을 높여가는 이벤트도 기대하고 있다.

베트남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30분 비전센터 3동 외국인예배실에서 드린다.



캄보디아예배팀(근로자 중심)

뽀띠 성도: 예배 시간과 연계한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 시간과 장소를 늘릴 수 있나?

광승현 위임목사: 한국어 교육과정은 주일에 초급과 토픽(TOPIK)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교회의 비전센터 2동 자치기 관 회의실을 활용해 한국어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수요에 맞춰서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우선은 처음 전도되어 교회로 오는 외국인들을 위한 기초반과 현재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외국인 성도들의 진급을 위한 중급 한국어 교육과정을 추가로 개설해서 6월부터 운영한다. 그리고 전도위원회와의 협력으로 ‘한글찬송학교’를 개설해 외국인들이 한글을 통해 기독교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배우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성도들 가운데 학교의 교사를 하고 계신 분이나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국어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봉사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캄보디아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비전센터 1동 2층에서 드린다.



※ 우리 교회 외국인 예배에 참여하는 외국인들로 구성된 연합 찬양팀 ‘헤이스’가 이번 외국인 연합예배에서 처음으로 경배와 찬양을 인도했다. ‘헤이스’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헬라어로, 다양한 국적의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오는 7월 세계선교주간에도 빛가득금요집회에서 경배와 찬양을 인도할 예정이다



미얀마에배팀(근로자와 거주자 중심)

산킴망 성도: 외국인 전도와 교회 출석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편 제공 방안은?

곽승현 위임목사: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이다. 우선은 외국인 성도들의 거주지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현재의 교통편을 일부 수정하거나 필요하다면 증설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현재는 주말마다 캄보디아 등 외국인 예배 지원을 위해 승합차를 배차해서 운행하고 있다. 또 외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전철역과 교회를 연결하는 승합차를 배차해 교회에 쉽게 오도록 돕고 있다. 주말마다 오전 11시 30분에 경의선 야당역 3번 출구에 승합차를 배차해 교회로 오는 외국인이 있으면 교회로 태워 오는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금촌통일시장 노방전도와 같이 외국인 전도가 늘어나면서 교회를 처음 찾아오는 외국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하지만 전적으로 성도의 봉사로 운영하고 있어서 외국인 성도가 늘어나면 좀 더 체계적인 교통편 제공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미얀마에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비전센터 3동 전도본부에서 드린다.



네팔에배팀(근로자 중심)

고골 성도: 외국인들의 교제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한데?

곽승현 위임목사: 이 사안 또한 교회와의 깊은 협의와 관련 부서 간의 소통을 통해 정책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공간의 문제는 여러 부서들의 동일한 고민이자 교회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 다양하고 많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외국인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찾아오고 그 나라 언어로 예배하는 팀들이 하나둘 늘어나는 일은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다. 더불어 선교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교회가 풀어가야 할 숙제도 늘어나고 있다. 지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또한 헌신이 필요하다.

다행인 것은 지난해 캄보디아에배가 설립되며 비전센터 1동 2층에 예배실을 마련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신설되는 예배가 우리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예배 공간을 우선 확보하면서 교회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공간을 다양하게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나그네를 잘 돌보라.'고 부탁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의 부탁을 잘 감당했으면 하는 게 위임목사인 저의 바람이자 또한 소망이다.

네팔에배는 주일 오후 1시에 비전센터 3동 전도본부에서 드린다.



☞ 곽승현 위임목사와 6개 외국인 예배에 참석한 형제자매들이 연한예배 후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었다



플로잉데이 Flowing Day 주님의 사랑 나를 통해 흐르리

2025 선한 사마리아인 부활절 프로젝트

거룩한빛광성교회 부활절 헌금 전액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성도와 이웃에게 흘러보내는 사역



플로잉데이를 통해 부활절 헌금 전액(1억 6375만 5330원)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흘러 보냈습니다.

•방법

헌금자가 자신의 부활절 헌금을 흘러보낼 대상자를 지정

•이렇게 지출했어요

항목	지원내용	지원금액	
범위 지정	한부모	해피월드 통해 지원	6,152,000원
	다문화		
	장애인		
	비밀언덕	자립준비 청년 지원	10,200,000원
	해외선교	해외선교사 지원	3,736,000원
	환우	환우 가정 지원	3,180,000원
	산불	산불피해 지원	59,756,330원
교인 지정		12,460,000원	
부서, 선교사, 형제교회 지정		4,110,000원	
타 교회, 타 교인 지정		20,850,000원	
금후 구제 사역		43,311,000원	
합계		163,755,330원	

두바이, 아부다비 지구에서 복음 전파가 가장 이루어지지 않은 곳

글 제이든 선교사(아랍에미리트)



2025년 2월, 거룩한빛광성교회 단기선교팀 33명이 두바이를 방문할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프리카 사역 후 한국으로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데, 두바이에서 경유하게 된 시간이 무려 21시간이라며 새벽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두바이 관광을 도와주실 수 있을지 제게 다급하게 연락을 한 것입니다. 이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곳도 선교지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곳은 다른 선교지와 여러 가지가 다르고 독특한 곳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때 단기선교팀과 나눈 이야기들을 Q&A 형식으로 각색해서 여타 선교지역과 조금 다른 중동 걸프 지역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Q. 두바이나 아부다비 같은 부유한 도시가 관광지가 아니라 선교지라고요?

A. 이곳은 현지인 99.99%가 무슬림으로 구성된 국가입니다. 일반적

으로 선교지라 하면 우리나라보다 가난한 경우가 많은데, 이곳은 우리보다 소득이 훨씬 높은 부자나라입니다. 그래서 '선교지'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분명히 지구상에서 복음의 전파가 가장 안 된 곳입니다. 그래서 선교가 절실한 곳이라고 보는 것이 아주 정확한 판단이라고 하겠습니다.

Q. 당신 제이든은 대학에서 일하고 있다면서요? 좋은 대학에서 월급을 받는데 왜 선교사를 해요?

A. 예. 저는 분명 세속사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높은 물가 때문에 직업이 없으면 거주비자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먼저 직업을 갖게 됩니다. 세속사회에서 일하는 것이 세속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속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선교의 접촉점을 갖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1. 문화 사역. 7개국 출신의 멤버들과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품기를 소망하며 청사초롱 만들기
2. 문화 사역. 키르키즈스탄, 스위스, 알제리, 우즈베키스탄, 인도 친구들과 추석 맞이 한복 체험
3. 문화 사역. 'You're loved' 메시지와 함께 귀인에게 선물할 부채 만들기

Q. 주중에 일을 한다면, 선교는 주말에 하게 되나요?

A. 선교가 무엇일까요? 선교는 타 문화권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풀러신학교에서 온라인으로 목회학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학기에 선교학을 배우며 어떻게 복음을 살아낼지(How we live out the Gospel)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졌습니다. 중동 이슬람 문화에서는 타인의 말을 듣고 믿기보다는 말하는 사람을 관찰하고 그 사람의 삶을 읽은 후, 그의 말을 신뢰합니다. 선교사의 삶은 그렇게 그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진실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Q. 그럼 눈에 보이는 사역은 없는 것인가요?

A. 하나님께서 아내 송을 선교사에게 문화 사역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회원이 800명이 넘었지만, 매회 모임은 소규모로 신청을 받아 모이고 있습니다. 한국문화를 매개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거주 인구의 90%가 외국인이라는 특이한 인구 구성에서 짐작할 수 있겠지만, 모임 참석자들은 다양한 국적과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제 하나님 사랑을 느끼는 공동체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깊어짐에 따라 소규모 독서 모임으로 연결하여 깊이 있게 삶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Q. 이슬람 국가는 열매가 별로 없다던데, 계속 선교를 하실 건가요?

A. 열매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만약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을 열매로 본다면, 이곳은 아직 열매를 맺는 시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거부감이 없어지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과정의 진보는 분명히 있습니다. 과일나무에 과실이 맺히기 전 싹이 나고 가지가 자라는 시간을 지울 수 없듯이,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이 과정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영광된 순간만큼 소중한 단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Q. 중동 걸프 지역에는 학생들에게 장학금 등의 지원을 많이 해주는 대학들이 있다 하던데요?

A. 중동 걸프의 산유국들이 소프트 파워를 높이고 자국의 대학 경쟁력을 높이려고 우수한 대학 캠퍼스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으로 뉴욕대학교 아부다비 캠퍼스(UAE)와 코넬 의대 도하 캠퍼스(카타르)가 있습니다. 미국 캠퍼스보다 더 많은 장학금 혜택과 다양한 지원이 있어서 인기가 높습니다. 중동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선교 훈련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원활한 주차를 위한 ‘협조’의 손짓 ‘20년’ 해병대교우회 김영철 집사

글 전영숙 기자



☞ 제복을 입는다는 것은 단순한 복장이 아니라, 책임과 헌신의 상징이다. 김영철 집사는 그 자부심을 안고, 언제나 묵묵히 봉사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 품생품사의 해병대교우회. 왼쪽부터 광노선, 심한경, 김영식(팀장), 이금아, 박동기(총무), 허영도, 김영철 집사

한국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군대’가 아닐까 싶은데, 예사 군대도 아니고 군기가 세기로 유명한 ‘해병대’에 자원입대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왜 사서 고생을 자처하는 걸까 싶었지만 해병대교우회의 끈끈함과 봉사 정신을 접하고 나니 그럴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20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제복을 차려입고 주차 봉사를 담당해 온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김영철 집사로부터 들어보았다.

“교회가 덕이동에 자리를 잡아 입당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자치 경비대를 구성해 교회 안팎을 살폈어요. 주차 봉사를 시작하면서 처음엔 어려움이 많았지요. 사람들이 잘 따라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복을 입기 시작했어요. 대놓고 뭐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열심히 봉사하고자 하는 해병대교우회의 노력은 ‘육’으로 돌아

왔다. ‘여기가 군대냐?’ 서부터 너무 태도가 강압적이라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성도들도 많았다. 김영철 집사는 스스로도 성도로서의 모습과는 조금 달랐다고 고백한다. 회원들 중에 군대 시절의 기질이 남아 욕을 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이들이 있으면 성질에 못 이겨 차를 쫓아가거나 도로에 눕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본이 안 되는 모습에 성향을 바꾸지 않으면 같이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교회가 우선이요, 교회 식구들이 빠르게 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이 지나가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우선으로 했다. 호루라기도 불지 않기로 하고 선글라스를 착용하기 시작했다. 선글라스가 위화감을 조성하며 아내도 반대했지만 거기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솔직히 젊은 사람들이 지시로 생각해서 눈 크게 뜨고 대들 때는 저도 욕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선글라스를 쓰니 서로의 감정이 표시되지 않아 참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절대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는 김 집사는 자신들의 표현이 협조를 구하는 일이니,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편하게 대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추운데 고생한다며 자신의 사비를 털어 회원 모두에게 아전 점퍼를 선물해 준 정성진 목사님을 비롯해, 더운 여름날 자신이 마시던 물을 내어 주던 권사님과 부활절 때마다 계란을 가져다 주시는 분도 있었기에 20년을 도로 위에 설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하는 김 집사는 ‘정감 있는 시선’ 그거 하나면 된다고 웃음 짓는다. 자신들의 사비로 제복을 맞추는 것도 마다하지 않기에 교회의 지원을 바라지 않고, 그냥 지나가다가 기도해 주고 음료수 한 병이라도 나눠 주면 그것으로 족하단다.
아직도 찻잔처럼 목소리에 70이라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보였는데 김 집사는 개인적으로 제일 잘한 선택이 해병대에 지원한 일이란다. 해병대를 통해 강인함과 포기를 모르는 정신을 얻었기 때문이다. 연이은 사업 실패로 더 이상 내려갈 바닥이 없던 때, 그 누구보다 자존심 강한 그의 눈에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다. 2시간을 울다가 문득 고개를 든 순간 눈에 띈 십자가. 철저한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기에 아내가 교회에 다니자 핍박을 해뒀던 그였다. 아내가 새벽기도를 가면 한겨울에도 문을 걸어 잠금 버렸다. 스스로도 ‘사람 같지 않았다.’고 할 정도였다. 그런 그의 눈에 십자가가 들어온 것이다.

이후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그는 기적을 경험했다.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김치 수입업을 시작했는데 첫날 4개의 주문이 들어오더니 다음 날 8개, 그다음 날 16개, 그다음 날 32개로 배가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교회에 잘 정착하길 바라는 아내의 권유로 시작한 축구선교단은 20년을 함께했고, 해병대교우회에서는 최장수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중고용품점을 운영하면서 업장에 들어가면 혼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는 가족 단톡방에 좋은 말씀을 올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제복이 주는 자부심에 70 평생을 살아온 김 집사는 그야말로 ‘품생품사(품에 죽고 품에 살다.)’지만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 제복에 우산은 안 어울린다 싶어 비 오는 날 비를 맞으며 봉사를 몇 번 했다가 폐렴에 걸린 이후로는 ‘객기’를 버렸단다. 해병대 출신이라고 해도 모두 함께 하는 것은 아니다. 15명에 달했던 인원이 이제 7명밖에 남지 않아 마음 한구석이 허하지만 포기를 모르는 해병대교우회에서는 ‘명에 해병대’로 이를 넘어설 생각이다. 여성들의 참여로 조금 더 부드럽게,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는 주차 봉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다.
어느 목사님이 했던 ‘교회를 다닌다고 모두 그리스도인은 아니다.’라는 말이 떠오른다. 색안경을 끼고 보기 이전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먼저 전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싶다.



☜ 교인들의 편안한 이동보다, 일반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애쓰는 해병대교우회원들



☞ 몸은 힘들어도, 잠시의 휴식 속에서 미소 짓는 해병대교우회

ISSUES & TREND

영어의 벽, 어떻게 넘을까?

I

**“영어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학교 영어교육에 대한 속고**

글 황종배

II

**저는 영어와
이렇게 친해졌습니다.**

글 최지우



“영어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학교 영어교육에 대한 속고

글 황종배 (건국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영어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0년 넘게 사범대학 영어교육과에서 예비 영어 교사들을 가르쳐 온 필자가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 중의 하나다. 이 질문에 나는 당혹감을 느끼곤 하는데, 이는 우선 영어를 배우는 사람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다를 수 있어서 정답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음으로는 이 질문이 사실 우리 영어교육의 고질병, 혹은 절대로 풀리지 않는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나는 개인적인 영어 학습보다 우리나라 학교 영어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며,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맞는 영어 학습 방법이 무엇인지 모색해보려고 한다.

먼저, 나는 ‘영어 공부’라는 표현을 정말 싫어한다. 영어는 공부의 대상이 아니고,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국가 교육과정에서 명시된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목표는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이며, 수학이나 사회, 과학, 역사 등과는 달리 영어과에서는 ‘인사하기’, ‘안부 묻기’, ‘칭찬하기’ 등의 의사소통 기능을 중심으로 내용을 제시한다. 물론 어휘나 문법 구조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나, 이는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도구로 제시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영어의 학습 목표는 아니다. 그래서 영어는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쓰고 익히는 것’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10년을 두고 영어를 배워도 말 한 마디 못하는’ 현실을 우리 영어교육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꼽곤 한다. 그런데 이 말속에는 우리의 영어교육에 대한 의미 있는 시사점 두 가지가 들어 있다. 먼저, 우리는 ‘영어를 배울 때 영어로 말을 하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수능의 그 어려운 지문을 읽고 정답을 찾아내거나 고급 수준의 문법 지식을 뽐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영어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대부분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러한 기대와 달리 우리는 말을 잘하는 것과 거리가 먼 방법으로 영어를 배우고 있다는 것을 이 말은 시사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는 모두 사실이다.

아래의 두 차트는 필자가 몇 년 전 교육부 위탁 과제로 전국 초·중·고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첫 번째는 ‘영어를 배우는 목적’에 대한 응답, 두 번째는 ‘학교 영어 수업 시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응답이다. 결과적으로 학생과 학부모 모두 영어 말하기 능력을 원하지만, 실제 학교 수업에서는 이를 찾아보기 힘든 현실을 보여준다.



그러면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영어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은 마땅히 “영어 의사소통,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로 바뀌어야 한다. 질문이 바뀌면 답도 바뀌기 마련이며, 이는 필자로 하여금 현재 학교 영어교육의 현실을 직시하게 만든다.

수년 전 한 신문 기사에 소개된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실 풍경을 보자.

지난 12일, 서울 용산의 한 일반고 3학년 교실 영어 수업. 학생들 책상 위에는 교과서 대신 『EBS 수능특강』 교재가 놓여 있었다.

“다음은 글의 목적을 찾는 문제네. 전체를 다 해석할 필요는 없어. <보기> 먼저 훑고, 지문의 처음과 마지막 부분 읽으면 대부분 답이 나오니, 한번 훑어 봐.”

김 모 교사의 말이 떨어지자 학생들은 EBS 교재를 응시했다. 잠시 뒤, 김 교사는 정답과 주제문을 설명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갔다. 수업은 50분 내내 비슷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장면은 단지 한 교실의 이야기가 아니다. 전국의 수많은 학교에서, 특히 고등학교 교실에서 반복되고 있는 영어 수업의 일상이다. 영어 수업이 ‘언어로서의 영어’가 아니라 ‘시험을 위한 영어 기술’을 익히는 데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이 영어를 말하고 듣는 활동은 철저히 배제된 채, 지문 분석과 정답 맞추기가 영어 수업의 전부가 되어버렸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이런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영어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가? 영어를 ‘도구’로 익혀서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가? 안타깝게도 답은 “절대 아니다.”이다. 학생들이 영어



를 배우고 싶어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말하고 소통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많은 학부모들이 자신들의 자녀가 영어 의사소통을 잘하는 글로벌한 인재로 커가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접하는 영어 수업은 의사소통 능력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영어로 말을 잘하고 싶은 학생과 학부모의 소망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 영어를 학교에서 교과목으로 배우기 시작하면서 바로 내신 성적에서 좋은 점수를 받거나 수능 영어에서 1등급을 받고 싶은 희망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자신의 흥미나 적성과는 상관없는 무지무지 어려운 영어 지문을 끝없이 읽고 해석하고, 단어를 외우고 문법 문제 푸는 요령을 반복적으로 학습하게 된다. 그리고 그 끝에는 결국 많은 경우 ‘영포자’가 생겨나거나 영어로 말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토익 점수는 만점에 가까운 ‘시험 기계’ 영어 능력자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영어를 잘하려면, 학교 영어교육의 현실부터 바뀌어야 한다. 영어 수업은 영어라는 도구를 사용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타인과 공감하는 의사소통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읽기와 쓰기’도 실제 사용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며, 그래야 지루한 학습이 아닌 흥미로운 실생활 중심의 수업이 될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답을 가지고 오히려 현실을 전혀 모르는 이야기라고 반박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반박이 오히려 현실을 전혀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나라의 영어교육 목표는 이미 21세기 들어 오면서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로 바뀌었고, 교육과정도 이미 그 현실을 반영하여 개정되었으며, 바뀐 교육과정에 의해 개발된 영어 교과서도 학교에서의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 학습’만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 놀랄 따름이다. 따라서 만약 학교에서 교육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영어교육이 이루어지지만 한다면, 우리의 학교 영어 수업 교실은 이미 영어를 사용하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견을 주고받는 흥미로운 의사소통의 장으로 변해 있어야 할 것이다.



결국 문제는 ‘시험’이다. 출제유기식 ‘상대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내신 평가와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지 못하는 수능 영어시험이 문제이고, 그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학교에서의 영어 수업이 진정한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수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영어교육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학교 영어교실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다시 그려야 한다. 지루하고 일방적인 시험 대비 중심 수업이 아닌, 학생들이 실생활과 연결된 흥미로운 주제 속에서 자연스럽게 영어로 듣고 말하며 읽고 쓰는 진정한 의사소통 중심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수업이라야 단지 영어라는 과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글로벌 사회의 일원으로서 타인과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소중한 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험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정답을 고르게 하고 그것으로 서열을 매기는 구태의연한 시험방식은 결코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줄 수 없다.

수능을 포함한 공교육 평가체제가 실제 언어사용 능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말하기와 쓰기 중심의 진정한 수행평가, 실제적 과제를 기반으로 하는 평가 등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교사들이 이러한 수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사 연수 확대, 수업 자율성 보장, 학교 행정지원 등 정책적 뒷받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영어는 결국 ‘시험’이 아닌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언어 도구이다. 우리 학교의 영어교실이 시험문제 풀이를 넘어 학생들의 꿈과 생각이 자유롭게 오가고, 웃음과 공감이 넘치는 의사소통의 장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

저는 영어와 이렇게 친해졌습니다

글 최지우(콜로라도주립대 1학년)

» 올 2월 민사고 졸업식 때 '고급영어'와 '작문' 부분 교과 우수상을 받았다



영어 동화책 읽어 주신 부모님

영어를 처음 접한 것은 3, 4살 무렵입니다. 뭐가 A이고 뭐가 B인지도 몰랐던 시절, 알록달록한 그림과 함께 영어 단어가 쓰여 있는 책을 읽어 주시던 부모님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부모님은 새로운 영어 동화책이 나오면 바로 사서 동생과 제게 읽어 주시곤 하셨습니다. 그 덕에 우리는 영어로 된 다양한 책들을 접했고, 자연스럽게 영어와 친해졌습니다. 지금도 우리 집 책장에는 어린 시절의 그 영어책이 여럿 꽂혀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떻게 이걸 다 읽어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제가 영어를 잘, 어쩌면 더 익숙하게 쓸 수 있게 된 건, 그때의 부모님 덕분이었습니다.

재미있는 놀이가 된 영어

엄마는 책, 오디오, 동영상 등 영어로 된 것이라면 뭐든지 읽어 주고 들려주셨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제가 책을 들고 오면 곧바로 일을 멈추고 읽어 주셨다고 합니다. 영어가 일상 속에 스며들었던 탓에, 지금도 차에 오르면 자연스럽게 윈어 디즈니 노래와 오디오북이 흘러나오고, 할머니 댁 거실에서 영어 노래에 맞춰 춤추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렇게 영어로 책을 읽고, 영어로 노래를 부르고, 또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일상이 되자, 영어가 자연스럽게 매일매일 제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어린 저에게 영어는

더 이상 어려운 꼬불꼬불 글씨가 아니라 재미있는 놀이였습니다. 차만 타면 "엄마, 영어책 들려줘!" 가 나올 정도로요.

영어 실력 올려 준 영어신문

영어가 '재미있는 것'으로 한번 인식되고 나니 영어 공부도 그렇게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단어를 외우고 글을 쓰는 건 재미가 조금 없기는 했지만, 책에서 노래에서 들었던 단어와 구절이 책에서 쑥쑥 나와 주니 흥미롭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는 영어교재로도 했지만, 영어신문도 매주 읽었는데요, 영어교재보다도 제 영어 실력에 도움이 많이 된 것은 영어신문입니다. 신문에는 제가 모르는 단어나 실생활 표현이 많이 나왔고, 신문사 웹사이트에는 영어 공부를 위한 별도의 코너도 마련되어 있었어요. 게임처럼 문장을 듣고 재구성하거나 퀴즈를 푸는 것처럼 내용을 파악하는 활동인지라 저도 모르게 실력을 쑥쑥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로 영어 문장을 듣고, 단어들을 뜻에 맞게 맞춰가며 문장을 완성할 때의 짜릿한 쾌감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제일 신났을 때가 문장이 다 나오기도 전에 광속으로 클릭해서 전부 맞췄을 때일 정도로요. 나중에는 아예 저 스스로와 경쟁을 하게 됐어요. '전보다 더 빨리 완성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머리를 최대한 굴러가며 공부하던 기억이 나서, 지금 생각하면 새삼 웃음이 납니다. 영어 공부는 물론 책으로도 문제 풀이와 암기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저도 이런 것들을 게



1. '2025 고양시 정월대보름 행사'에서 사회를 맡아 진행하고, 영어 해설 영상을 제작했다
2. 외국인 관광객에게 영어로 경복궁을 안내하고 함께 찍은 사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영어 해설사로 활동해 오고 있다

을리한 건 아니지만,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 어렵고 힘든 공부도 조금이나마 의욕 있고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화원 외국인 가이드

영어를 익숙해지기도 했고 실력도 꽤 올랐으니, 이제 실생활에서 영어를 써 봐야겠죠! 초등학교 5학년 때, 엄마가 처음으로 저를 문화원이라는 곳에 데려가셨습니다. 이곳에서 하는 일은 한국에 오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우리 문화재에 대한 역사를 설명해 주고 함께 투어하는 것인데, 외국인들과 실전 대화가 가능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도움이 크게 되었습니다. 외국인들과 나눈 것들이 중요하거나 심각한 얘기가 아닌 그저 일상적인 이야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하루가 어땠는지, 한국에는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등등의 얘기를 나누었던 것은 아직도 정말 귀한 경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좀 더 커서는 외국 영화와 소설책, 시 등의 원서를 자연스럽게 읽게 되었습니다. 물론 영어로 된 게임도 많이 접했고요. 그중 몇몇 소설과 영화, 게임에 푹 빠진 뒤에는, 같은 작품을 본 사람들과 영어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즐거워졌고, 그 경험이 중학교 시절을 지나 고등학생,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저만의 꾸준한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조금 부끄럽기는 하지만, 이제는 한국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는 것이 아닌 생각 자체를 영어로 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네요. 어릴 때부터 영어 자체에 익숙해지고, 영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점점 익숙해지다 보니, 어느새 저는 민사고에서의 영어 토론이나 영어 수업도 두렵지 않은 '영어 친화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 잡고 영어 책장을 넘겨 보세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영어 유치원 유행을 넘어, 자녀들을 영어 학원에 보내기 위한 부모님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7살 정도의 아이들이 유명한 영어 학원에 가기 위해서 필수로 봐야 하는 시험, 그리고 그 시험을 보기 위해 가는 또 다른 학원까지. 한국에서의 영어교육을 위한 열정을 보고 있으면 신기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합니다. 물론 저도 영어 학원을 다니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 학원들이 제가 영어에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아예 도움을 주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제가 해온 방식으로 해야만 영어와 친해질 수 있다는 건 더욱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어릴 적, 엄마 아빠가 읽어 주시던 영어책을 통해 처음 영어와 친해졌던 것처럼 부모님들께서도 영어 학원 목록을 넘기기보다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책장을 넘겨주신다면, 아이에게 훨씬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영어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요?



» 4살 터울인 동생에게 책을 읽어 주고 있다. 어려서부터 동생에게 책 읽어주는 것을 좋아했다

인생에서 겪게 되는 ‘처음’의 의미

글 이재광 목사(거룩한빛광성교회)



유아세례를 받은 후 광승현 위임목사와 함께 찍은 기념사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마찬가지겠지만, 무엇이든 ‘처음’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처음의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함께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방향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최근 저는 이렇게 인생에서 아주 특별한 ‘처음’을 경험하면서 그 어려움에 대해 다시 한 번 절실히 느끼고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13일, 우리 가정에 선물처럼 찾아온 아들 유준이와의 만남 사건입니다. 유준이의 출생은 예상치 못한 긴박함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일 새벽 아침 경건회를 마치고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중, 아내로부터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양수가 터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고, 이 다급한 상황은 위임목사님의 1~4부 예배 설교 중에 실시간으로 성도님들께 전해졌습니다. 성도님들의 격려와 중보 속에서 유준이는 예정일보다 2주 이르게 이 땅에 찾아왔습니다.

처음 겪는 이 모든 상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자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병원과 조리원에서 함께한 4주는 제가 밤늦게야 그곳에 도착해서 시작되는 아주 제한된 시간이었지만, 오로지 기쁨과 행복

복으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유준이를 만나면, 처음이라 모든 것이 서툴렀지만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 그 자체가 즐겁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도 잠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조리원을 퇴소하기 하루 전, 유준이의 배가 점점 부풀어 오른다는 조리원 선생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곧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담당 의사의 권유로 큰 병원으로 이송하여 정밀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준이는 결국 일산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부모가 된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늦은 밤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의사는 유준이의 상태를 살펴보고, 몸 전체 검사를 다시 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처음 세상에 나온 작은 아이가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제 마음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정해진 시간을 제외하고는 부모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렸지만,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정리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지 결단에는 이를 수 있었습니다. “내가 무너지지



1. 격리되어 있는 유준이
2. 태어난 지 200일 되던 날

말자. 할 수 있는 것을 다하고, 그 이후는 하나님께 맡기자...” 그렇게 정신을 차리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유준이에 대한 검사가 끝난 뒤, 면회 시간이 되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유준이는 혼자 격리된 채 인큐베이터 안에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큰 문제는 없겠지, 없을 거야...’라는 불안한 마음이 계속 밀려왔지만 아내를 바라보며 “괜찮을 거야. 선생님께 차분히 여쭙보자.”라고 서로의 불안을 다독였습니다.

검사 결과, 유준이의 배가 부풀어 오른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심장에 약간의 잡음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몇 가지 추가검사가 필요하다는 말도 함께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괜찮을 거예요. 다른 아이들보다 일찍 퇴원할 수도 있어요.”라고 위로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와 아내는 비로소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며칠 뒤, 유준이는 여전히 배가 약간 부풀어 있었지만 퇴원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유준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유준이와 함께하는 새로운 가족 여정이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부모’의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었고, 씻기는 것, 먹이는 것 등 여러 가지 일들을 새롭게 배워야 했습니다. 유준이는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안아주고, 달래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봐도 끝내 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유준이의 모습에 저와 아내, 그리고 육아를 돕기 위해 달려오신 저의 어머니까지 모두 마음 아파하며 뜯는 마음으로 약한 달을 보냈습니다. 아직도 그때 유준이의 몸 상태나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긴 시간을 지나오면서 우리 가족은 분명히 배운 것이 있습

니다. 사랑은 모든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견디고 끝까지 곁에 머무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유준이의 울음 앞에 무기력했던 우리는 그렇게 그 자리에 함께 있어 주는 것으로 조금씩 부모로서의 사랑을 배워갔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더욱 깊이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생에서 이유 없는 아픔과 눈물을 겪으며 즉답을 구하려 몸부림을 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당장 해결하시기보다 그 자리에 함께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유준이를 통해 처음 부모가 되어가는 여정을 계속 걸으며 저희는 하나님의 그런 인내와 사랑을 조금씩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처음 아이의 부모가 되어 모든 일을 매끄럽게 감당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사랑과 인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배워가며 우리 가족 모두는 조금씩 성장하는 중입니다.



어린이날, 펜션에 놀러 가서 물놀이를 즐기 있는 모습

새가족위원회 섬김팀 & 오병이어팀

글 최은우 학생기자 사진 이종수 청년기자

섬김팀

1. 섬김팀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새가족섬김팀은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께 복음과 공동체의 사랑을 가장 먼저 전하는 거룩한 첫 인상입니다. 저희는 안내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가족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잘 정착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을 세상 속으로 흘러보내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돕고자 합니다.

2. 새가족이 듣는 4주간의 교육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 되는 것인가요?

새가족 교육은 새가족이 교회에 잘 적응하고, 신앙의 기초를 다져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1주 차에는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와 방향성을 가르치며, 또한 교회의 3대 목표인 섬기는 교회,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와 지역사회 문화의 중심지, 고양·파주 성시화 본부, 한국교회 개혁 모델, 북한 선교 전초기지, 세계 선교 중심 센터라는 5가지 비전에 대해 교육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는 사명을 소개합니다.

2주 차에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알리고, 복음에 기초한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새가족들에게 예수님 중심의 삶을 가르치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3주 차에는 복음 전도를 통해 구원받은 영혼과 등록·전입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정착을 돕고 경험하게 하는 작은 모임인 목장을 소개하고, 신앙생활의 실제적 터전으로 연결합니다. 목장 안에서 생명이 있

는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공동체 사역에 동참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게 합니다.

4주 차는 마지막 시간이지요. 새가족 교육의 마지막 시간은 교회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간으로 교회의 연혁과 비전, 시설, 사역을 종합적으로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새가족분들께서 교회의 정체성을 알고, 교회의 일부로서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새가족분들께서 교회에 잘 적응하려면 교회의 도움 말고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도분들의 관심입니다. 새가족이 교회에 정착하려면 환경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속의 사람들, 즉 성도분들의 노력 또한 중요합니다. 새가족이 소중한 개인으로 여겨지는 경험을 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목회자나 섬김팀뿐 아니라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의 돌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새가족은 단순한 방문자가 아닌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난다 믿습니다.

4. 섬김팀에서 사역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예배만으로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기 어렵다는 고백에서 시작된 사역입니다. 섬김팀은 단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는 감사의 표현으로 이 사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새가족과의 나눔을 통해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체험합니다.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병이어팀

1. 오병이어팀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오병이어팀은 새가족 섬김을 위한 '따뜻한 식탁'을 준비하는 사랑의 사역팀입니다. 이 사역은 단순한 식사 제공이 아니라 환대와 교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는 귀한 사역입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닌 사랑과 정성, 기도와 복음이 담긴 '섬김의 식탁'으로 교회에서 가장 신성하고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 새가족을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귀한 손님으로 여기며 대접합니다.

2. 새가족분들에게 특식을 제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회를 처음 방문한 새가족에게 교회의 일반식이 아닌 차별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정서적인 안정감과 따뜻한 환영의 분위기를 전달하고 사랑과 정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데, 이를 통해 새가족이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 공동체에 더 깊이 연결되도록 도와줍니다.

저희는 한 끼의 식사를 통해 복음의 다리를 놓는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합니다.

3. 오병이어팀에서의 사역만이 가지는 특별한 장점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오병이어팀의 사역이 특별한 이유는 단지 '무언가를 준비한다.'는 외적 행위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는 사람, 그리고 팀워크가 있습니다. 오병이어팀의 사역은 맛있는 음식을 넘어서 '복음이 담긴 한 끼를 만들어 내는 섬김의 리더십'이며, 단순한 기술이 아닌 정성과 영성으로 음식에 온기를 담아내는 귀한 헌신의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사역팀은 어떤 역할이든 즐거운 마음과 섬김의 자세로 협력하여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교회에 처음 나온 새가족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섬김팀'



☞ '새가족 세미나'. 새가족들은 4주간의 교육을 통하여 신앙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받는다



☞ '오병이어팀'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섬김팀'이 새가족을 위해 접시에 담고 있다



☞ 새가족을 위한 식사를 정성껏 준비하는 '오병이어팀'

나가사키

2025년 5월 19일 ~ 5월 22일

글 김미선 권사



순교지 탐방을 떠나며

기독교 인구가 매우 적은 일본에 어떤 순교지가 있을까? 초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깊은 믿음을 가졌기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했을까? 많은 것이 궁금했습니다.

5월 19일 새벽 6시, 광승현 위임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85명이 출발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정성진 목사님, 하늘빛광성교회의 박경수 목사님 외 11명, 운동교회에서 오신 2명, 그리고 개인적으로 도착하신 분들까지 모두 101명이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설렘과 기대 속에서 후쿠오카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5월 19일 첫째 날

① 마쓰라 사료박물관

후쿠오카에 도착 후 버스를 타고 히라도로 이동하여 첫 번째 순교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내린 '기독교 금제의 정서' 원본이 전시된 마쓰라 사료박물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일연합선교회(WGN) 탐방객들을 위해 히라도의 영주였던 마쓰라 다카노부의 저택을 전시관으로 사용하고, 특별 전시를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② 아이자 화형장

이곳에서는 '후미에 제도'를 간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후미에 제도는 에도 막부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 실시한 기독교 신자 색출 정책입니다. '후미에'는 '붉은 그림'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이나 성모 마리아의 초상화를 나무 또는 금속판에 새긴 그림을 말합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지시대로 후미에를 밝거나 침을 뱉어야 했습니다.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후미에 체험을 통해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했던 순교자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저의 믿음도 돌아보았습니다. 바닷가에 자리한 아이자 화형장을 바라보며 카밀로 콘스탄치오 선교사께서 화형으로 순교 당할 때 불길 속에서 환희에 찬 목소리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나의 죽음의 의미를 알아주신다면, 나는 삶에 아무런 미련 없이 기꺼이 이 운명을 받아들일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신 그 말씀이 가슴 깊이 다가왔습니다.

☞ 카밀로 콘스탄치오 선교사께서 화형당하신 아이자 화형장



5월 20일 둘째 날

① 스텐타 감옥터

스텐타 감옥은 겨우 6평 남짓한 공간에 33명이 갇혀 몸을 움직이지도, 눕지도 못한 채 배설까지 그 안에서 해결해야 했던 극한의 환경이었습니다. 결국 모두 처형당한 이곳은 순교자들의 고통과 믿음을 깊이 목상하게 했습니다.

② 호코바로 처형장

1657년, 나가사키현 오무라시에서는 '고라쿠즈레 사건'으로 인해 411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이 중 131명의 신자는 호코바로 처형장에서 참수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부활 신앙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머리와 몸을 분리해 잔혹하게 매장했다고 합니다.

이 처형장에서 무릎 꿇고 목상하는 가운데,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결정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내 믿음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살길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③ 일본 현지 교회 방문

일본 현지 교회는 매우 작고 간소한 예배당이었습니다. 일본인 목사님께서 "세례받지 않은 분은 손을 들어 보라."고 하셨고, 우리 3호

차 가이드인 우하안 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본 목사님께 세례를 받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이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쁜 일정 속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④ 니시자카 언덕 26인 순교비

기독교 탄압이 극심했던 1587년 이후에도 믿음을 지킨 신자들이 있습니다. 교토와 오사카에서 24명의 신자와 선교사가 체포되어 나가사키까지 걸어오게 되었고, 자발적으로 합류한 2명을 포함해 총 26명이 니시자카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1. 가톨릭 신자들이 겪은 박해의 상징적인 유적지, 스텐타 감옥터
2. 17세기 초 일본에서 가톨릭 신자들이 겪은 박해의 상징적인 유적지, 호코바로 처형
3. 일본인 목사님이 우하안 가이드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4. 니시자카 언덕 26인 순교비

5월 21일 셋째 날

한일연합선교회 문화교류

셋째 날에는 한일연합선교회(WGN)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제5회 한일문화교류회가 열렸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기독교인이 함께 순교의 역사를 기억하고, 화해와 협력의 메시지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특히 한기채 목사님과 정성진 목사님의 나눔을 통해 일본 선교 역사 속 하나님의 손길을 생생히 느낄 수 있었고, 임현수 목사님의 "북한 선교의 마지막 퍼즐은 일본"이라는 메시지는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일본 전 총리 하토야마의 "우애란 자신의 존엄을 존중함과 동시에 타인의 존엄 역시 똑같이 존중하는 개념"이라는 말에서 또 다른 일본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하며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탐방이었지만, 돌아오는 길에는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이 마음속 깊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통해 주님을 만났고, 지금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더없이 주님을 부르짖게 된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이 먼저 믿었으나 지금은 신앙이 많이 쇠퇴한 현실. 이제는 우리가 일본을 위해 더 깊이 기도하며, 그 땅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한 알의 밀알이 되자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이풀 제주도 수련회 & 선교 보고

2025년 6월 1일 ~ 6월 7일

글 김미경 집사

이번 선교는 총 40가정, 최연소 9개월 아기와 임산부를 포함한 146명이 함께 했습니다. '고백'이라는 주제와 조이풀의 각 가정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제주 주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쯤 되면 '어...? 40가정이 6박 7일을 간다고? 선교지에 어린아이 가?'라는 의문이 드실 텐데요, 예, 저희도 궁금했습니다. 이 유래가 없는 선교여행, 어떻게 펼쳐질까요?

행원교회 & 들락날락 센터

행원교회는 월정리 바닷가 근처에 있는 아담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교회 규모에 비해 많이 으리으리한 키즈카페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층 규모의 키즈카페에 커피 바, 각 주일학교의 예배실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 키즈카페는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되고 있습니다. 운영은 후원금과 교회 성도들의 봉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들락날락 센터'가 조이풀 선교의 비밀 열쇠였습니다. 아이들은 여기서 자유롭게 뛰어놀았습니다.

전체 선교 기간은 길지만 각 가정이 휴가를 낼 수 있는 대로 2박 3일이든 4박 5일이든 자유롭게 날짜를 지정해서 참여했습니다. 미리 우리 가족이 할 수 있는 사역을 선택해 준비한 것이지요.



행원 플레이데이 - 너만을 위한 꿀잼 탐험, 지금 시작!

행원교회가 지역 사회에 무료 개방한 키즈카페 '들락날락 센터'에서 구좌 초 어린이들과 행원교회 주일학교를 대상으로 방과 후 즐거운 놀이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각종 실내의 게임, 직업탐방(건축가, 호텔 추주방장 강의), 부채 만들기 등 총 5개의 체험으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약 50여 명의 아이들이 참여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많이 왔지만 들락날락 센터가 친근해서인지 다들 어색함 없이 즐거운 모습이었습니다.



플로깅 팀

플로깅팀은 월정리 주변 약 8km 해안선의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쓰다 버린 그물, 플라스틱, 비닐 등을 치우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바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CTS에서도 취재를 나왔습니다. 바닷가에서 오랫동안 걸어야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른들만 신청을 받았지만, 조이풀 아이들도 하고 싶어 해서 10명의 용사들이 나섰습니다. 땀벌에서 끝까지 완주한 너희들, 정말 자랑스러워!



마을 전도 팀

마을 전도 팀은 조이풀 아이들과 크로플을 굽고 모기를 쫓는 모빌인 '모스큐브'를 만들어 마을분들께 드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사시는 마을분들께 복음을 전했어. 행원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했는데, 아이들이 가니 많은 분들이 기쁘게 맞아주시고 용돈을 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쭈뼛거리고 창피해하던 아이들은 나중에는 용기가 생겼어요. 받은 용돈은 행원교회에 헌금해서 더 뿌듯했습니다. 여러 어른들이 결신 기도까지 고백하는 열매도 있었답니다.

행원에서 놀당갑서

조이풀에서 아심차게 준비한 마을 잔치 - '행원에서 놀당갑서.'

휴일이었던 6월 6일, 마을 잔치를 열었습니다. 각종 먹거리와 게임을 준비해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2시간씩 3타임으로 나누었는데, 사전 예약한 300분이 다녀가셨어요. 아이들을 위해 페이스페인팅도 준비하고 들락날락 센터도 개방했습니다. 조이풀 아이들은 따로 행원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분들이 즐겁게 놀아주시고 게임도 진행해주셔서 이 모든 사역이 가능했습니다.



저녁에는 수련회 - '제주 하나밤'

제주에서는 유난히 강한 바람 때문에 야외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제주까지 간 육지인 조이풀은, 역시 참지 않았습니다! 박승현 위임목사님의 깜짝 공연까지 더해 초여름의 제주, 우리에게 또 하나의 잊지 못할 추억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엔 행원교회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위임목사님의 '제주 방언 퀴즈'로 웃음꽃이 피어난 예배는 '추운 남극에서 살아가는 펭귄의 지혜 - 허들링을 통한 공동체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마음을 더욱 뜨겁게 했습니다.

마지막 밤 - '꼭삭 속아수다'

행원교회 김요한 목사님은 이 선교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서로 나누고 발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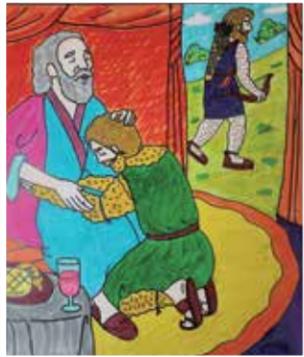
짧은 선교를 통해 우리는 20대의 열심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고, 우리 아이들은 부모들이 예배하고 사역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다음세대를 키우는 지금 세대, 3040 조이풀 장년부.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꽃들이 모여 또 하나의 꽃이 된 수국처럼 더 큰 아름다움으로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비를 털어 제주까지 달려와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고 사역을 도와주신 권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행원교회는 앞으로도 아이들로 북적일 것이고, 돌담을 넘어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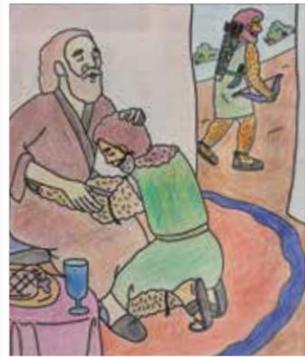
‘성경 컬러링 이벤트’ 선정작 3점

지난 호 이벤트 ‘에서와 야곱’ 컬러링에 참여한 작품 중 3점이 선정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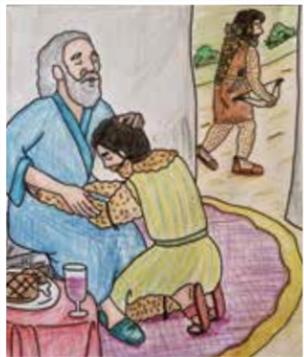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산 야곱은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며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영원한 복음의 언약에 동참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이는 저에게도 교훈을 주었습니다. "나의 능력만 의지하며 세상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영원한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상속자로 영광뿐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으며 살아야 한다."

정승은(거룩한빛광성교회/집사)



에서와 야곱을 색칠하면서 배고픔에 장자의 직분을 팔아 넘긴 에서와 그 직분을 사서 장자 노릇 하려 했던 야곱이 지금 저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고통과 힘들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며 성도 생활을 하는 건 아닌지,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며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색칠을 하며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 더욱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문소희(거룩한빛광성교회/청년)



컬러링을 하면서 인간적인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형에게 돌아갈 복을 가로채기 위하여 속임수를 쓰는 행동은 결코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팔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쉽게 내놓았던 에서를 보고 영적 축복을 귀하게 여기는 야곱의 그 마음만 생각한다면 저 자신이 참 부끄러워집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 영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갈급함으로 채워 주세요."

박상미(거룩한빛광성교회/집사)

성경 컬러링

도안을 예쁘게 색칠하여 자신만의 컬러링 작품을 완성해 보세요.
완성작을 사진으로 찍어 『겨자씨』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우수작을 선정하여 기프트콘을 드립니다.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



맥추절과 사브웃 축제

글 김중식 관장(세계기독교박물관, www.segibak.or.kr)



2025년도의 맥추감사주일은 7월 6일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기준으로는 6월 2일이 된다. 시완월 6일이 되면 보리와 밀 추수를 마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샤브웃' 축제를 즐기는데, 이날은 당연히 공휴일이다.

유월절 다음날로부터 49일이 지난 날이므로 이날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칠칠절' 이요, '성령강림절'이기도 하다. 이 50일 기간에는 동쪽 사막으로부터 뜨겁고 강한 모래바람이 매우 심하게 불어오는데, 이 바람을 성경에서는 '동풍'으로 표현하고 있다. 동풍이 너무 심하게 불어오면, 밀 이삭이 마르거나 올리브꽃이 떨어져 흉년이 들기 쉽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근신하면서 이 50일을 지낸다.

칠칠절은 3대 절기이므로 성서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 이 절기를 지켰다. 그러나 성전이 무너져 버린 현대에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키부츠가 주최하는 샤브웃 축제에 참석하여 하루를 즐기기도 한다.

샤브웃 축제에서는 보리와 밀을 추수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춤을 추거나 퍼레이드를 벌인다. 그리고 트랙터에 아이들을 태워서 밀을 베는 시연도 한다. 지난 한 해 동안에 태어난 아기들을 부모와 함께 불러내어 푸짐한 선물을 안겨주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추수의 감사를 더욱 실감나게 해 준다. 현대 유대인들에게 맥추절이 중요한 이유는 이 절기가 끝나면 무더운 여름과 함께 암울한 절기들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바로 성전파괴일과 속죄일이다. 이 절기들을 지나야 수장절을 맞을 수 있는 것이다.

1. 키부츠 밀밭에서 민속춤을 추는 모습과 전국에서 모여든 관람객들

2. 샤브웃 축제에서 밀 이삭을 줍는 룯의 모습으로 분장한 여학생



꿈.담

꿈을 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될 다음세대

꿈꾸는 다음세대

학생

꿈을 담는 가정

가정

꿈을 지켜주는 담장

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꿈꾸는 다음세대

꿈꾸는 꼬마 (꿈꼬)

영아(0~3세)
유아(4~5세)
유치(6~7세)

꿈꾸는 어린이 (꿈린이)

초등학교
1~6학년

꿈꾸는 세대 (Dream Generation, 꿈젠)

꿈젠 중등부

14세~16세
중학생

꿈젠 고등부

17세~19세
고등학생

≡ 꿈.담 ≡ 영아부

0~36개월,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이야기

글 정은숙 기자

영아부 예배는 0~36개월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드리는 예배다. 1부는 오전 11시, 2부는 오후 12시 30분에 있으며,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돌보는 따뜻한 교사들이 함께하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작고 어린 존재들이지만 아이들의 눈빛과 손짓, 말없이 집중하는 모습 하나하나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 같다. 말을 잘하지 못해도 찬양에 귀를 기울이며 흥얼거리고, 말씀 속에서 무엇인가를 느끼듯 두 눈을 반짝이는 모습이 참으로 어여쁘고 감동적이다. 순수하고 귀한 아이들의 예배를 보시는 주님의 두 눈과 입가에 번지는 기쁨의 미소를 떠올리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말씀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며 자라나 세상 가운데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지혜와 분별력을 갖추되, 마음은 여전히 맑고 따뜻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길 기도한다. 오랫동안 거룩한빛광성교회 파송 선교사로 인도에서 사역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와 영아부를 섬기고 있는 이영신 전도사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은 어느 때보다 은혜롭고 행복한 순간들이다." 라고 말한다.



≡ 누구 집 아가일까요. 붕어빵 아빠 목사님 찾아보세요



≡ 꿈담페스티벌에서 '달려라 기차'를 타는 천사들



≡ 세상에서 가장 예쁜 병아리반 선생님들과 아기들

≡ 꿈.담 ≡ 초등 4부

말씀과 함께 성장하는 초등4부 이야기

글 정은숙 기자



1



2

초등4부의 핵심 사역 중 하나는 '성경 일독 프로젝트'이다. 아이들이 성경을 읽으며 말씀의 흐름과 내용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작되었다. 교사들은 주중에 가정과 협력하여 아이들의 진도를 함께 점검하고, 성경 읽기를 지속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 열매로 9명의 아이들이 성경 전체를 완독하고 시상 받았으며, 다른 아이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도전의 계기가 되어 성경 읽기가 초등4부 안에 하나의 영적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꿈담페스티벌 어린이 한마당'에서는 초등4부가 주관하여 성경 66권 퍼즐 맞추기 활동을 진행했는데, 아이들이 성경 각 권의 이름과 순서를 몸으로 익히며 성경 전체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준비했다. 퍼즐을 맞추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성경의 구약과 신약, 율법서와 복음서, 서신서의 구분 등 기본적인 성경 지식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었고, 게임을 통한 학습의 효과를 직접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다. 아이들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성경에 대한 흥미와 친밀감을 더하게 되었다. 성경 일독과 체험 중심의 활동들을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기준 삼아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어린이로 자라나기를 소망해 본다.

1. '성경 66권 퍼즐 맞추기' 활동에 참가 중인 어린이들

2. 색깔이 하나밖에 없네



운동화를 선물 받은 성경 일독 수상자 어린이

꿈담 | 중등부

중등부 엄유현 · 정재윤 전도사님 인터뷰

글 태경환 학생기자

중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으로 동행해 주시는
엄유현 전도사님과 정재윤 전도사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중등부 정재윤, 엄유현 전도사님을 인터뷰했다

Q. 중등부에 오신 지 왜 되었는데, 어떠셨나요?

정재윤 전도사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워서 적응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했던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다니던 교회를 떠나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이 처음이었고, 성도에서 사역자의 자리로 옮긴 것도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엄유현 전도사님을 비롯해 중등부 선생님들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겨울수련회에서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고 웃고 울며 보냈던 시간은 제게 큰 감동이었어요. 그 이후로 한 주 한 주 함께할수록 이 공동체가 점점 제 마음속의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이곳이 너무 소중한 저의 사역지가 되었어요.

Q. 전도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때는 언제였고,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엄유현 전도사 두 시점이 떠오르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목사님이 단상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하나님 곁에 가장 오래 머물며 그분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진심으로 마음먹게 되었죠.

정재윤 전도사 제가 본격적으로 결단한 건 2023년 여름이었어요.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미 기독교교육을 전공으로 택하며 사역자의 꿈을 품었지만, 자신감이 없어서 졸업 후에는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신 모습이 자꾸 제 마음속에 떠오르더라고요. 그 사랑을 닮아 저도 사람들을 진심으로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돕고 싶은 마음이 커졌어요. 결국 사역자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돕고 싶어 목회자의 길을 선택한 정재윤 전도사

Q. 학생들이 학교나 학원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재윤 전도사 일상을 말씀과 찬양에 노출시키기 - 일상의 예배 알고리즘 형성

일상을 '말씀과 찬양' 속에 노출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치 유튜브의 알고리즘처럼 내가 무언가에 관심을 가지고 노출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요즘에는 말씀과 찬양 콘텐츠도 정말 다양해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어요. 그런 콘텐츠를 꾸준히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더 자주 떠올리게 되고, 일상 속에서도 신앙이 유지되죠.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무심코 넘기던 '스크롤' 속에서도 말씀과 찬양이 우리 삶을 채우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곧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엄유현 전도사 나의 일상을 예배로 만들기

하루 전체를 '하나의 예배'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과 끝에 "하나님, 오늘 나의 모든 선택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 나 지금 예배 중이지.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기뻐될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물론 실수도 하고 깜빡할 수도 있지만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밖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민하고 애쓰는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은 가장 기쁘게 보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실 거예요!

마무리하며

전도사님들의 따뜻한 말씀과 진심 어린 격려는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예배로 살아가길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중등부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빛나고 있어요. 우리 모두 파이팅입니다!



» 하나님 곁에 가장 오래 머물며 그분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엄유현 전도사

꿈담 | 고등부

거룩한빛광성교회 고등부 기도 모임 리더 학생 인터뷰

글 최아인 학생기자

일시	2025년 5월 11일 10:30~11:00
장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등부실
참석	『겨자씨』 기자 최아인 학교 리더: 김단아(일산동고), 문서영(덕이고), 최태량(동패고), 홍유은(고양예술고), 황하진(마송고)

최아인 기자 안녕하세요. 거룩한빛광성교회 고등부 기도 모임 리더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게 된 『겨자씨』 최아인 기자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기도 모임을 만들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김단아(일산동고) 저는 단순히 ‘땀’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보여주기식이라고 할 정도였는데, 진행하다 보니 제가 심적으로 힘들 때 하나님과 얘기를 하면서 위로를 많이 얻었던 경험이 기억났어요. 우울하고 힘들어 할 시기인 청소년 친구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편안한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지금의 기도 모임을 만들었어요.

최태량(동패고) 저는 전도사님의 권유로 처음에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기도 모임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 저희 학교 친구들과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되어 계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최아인 기자 기도 모임은 주로 어디서 진행하나요?

최태량(동패고) 교회 본관 4층 소모임 룸에서 하다가 지금은 5층 음악실로 바뀌었습니다.

김단아(일산동고) 장소를 구하는 일이 쉽지 않아 매번 선생님들께 여쭙본 뒤 그때그때 단체 채팅방을 통해 공지하고 있습니다.

황하진(마송고) 음악실에서 해요.

홍유은(고양예술고) 대극장이 있는 기본관 앞 벤치에서 합니다.

문서영(덕이고) 5층 이동 교실에서 진행합니다.

최아인 기자 기도 모임을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태량(동패고) 학업과 병행하다 보니 친구들이 기도 모임에 집중 못 할 때가 있어요. 그 점이 어렵습니다.

김단아(일산동고) 매번 기도 모임 장소를 새로 구해야 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리고 저희 기도 모임 학생들이 30여 명 되는데, 모두 참

석하진 않아요. 어떻게 애들을 불러 모아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황하진(마송고) 저희는 원래 작게 시작했고, 지금 부흥하는 단계에 있어요. 기독교랑 관련이 없는 친구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아요.

홍유은(고양예술고) 저희는 4명밖에 없고, 예고 특성상 전공 시간과 실기도 다르니까 만나기가 쉽지 않아서 아예 못 만나는 경우도 많은 게 힘들어요.

문서영(덕이고) 저희는 삶에 대해서 많이 나누는데, 말을 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남의 말을 잘 못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점이 어려워요.

최아인 기자 기도 모임으로 인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태량(동패고) 주중에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학교 선배분들과 친목을 더 다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좋습니다.

김단아(일산동고) 저는 학교에서도 ‘크리스천’이라고 보여지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저희는 기독교가 아닌 친구들도 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제가 이끌어 나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분위기라서 좋아요.

황하진(마송고) 제가 집이 멀다 보니 교회에 학교 친구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기도 모임을 하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 나누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무엇을 돌아봤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더 위로가 되고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홍유은(고양예술고) 저희는 전공이 있어서 각자 학업 외에도 실기나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더 먼저 찾게 되는 것 같고 친구들이랑도 얘기하면서 종교적인 고민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문서영(덕이고) 저희는 하나님한테 감사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좋아 일주일 내내 진행해요. 늦게 일어나서 못 오는 친구들도 자기가 일어났을 때 오면 되니까 그게 큰 장점이에요.

최아인 기자 기도 모임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은 무엇을 통해 연락하면 될까요?

최태량(동패고) 저한테 직접 얘기해도 되고 고등부 벽면에 붙어 있는 포스터에 있는 연락처나 QR을 통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단아(일산동고) 전도사님께 말씀드려도 되고, 포스터 참고해도 되고, 저한테 직접 와도 좋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세요.

황하진(마송고) 마송고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홍유은(고양예술고) 고양예고 친구들~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서영(덕이고) 교회에서는 전도사님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 저희 학교에서도 모집 준비를 하고 있어서 다음 주부터 포스터에 QR을 넣어서 홍보할 거예요. 그 포스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아인 기자 기도 모임을 진행하는 시간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최태량(동패고) 목요일 방과 후에 음악실로 와주시면 됩니다.

김단아(일산동고) 저희는 매주 월요일 점심시간 1시 40분부터 2시까지 하고 있어요.

황하진(마송고) 수요일 점심시간 12시 20분 이후에 와주시면 돼요.

홍유은(고양예술고) 저희는 매주 금요일 수업 끝나자마자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서영(덕이고) 저희는 매일 8시 20분부터 8시 55분까지 하고 수요일, 금요일은 정기 모임이에요.

최아인 기자 참여하고 싶거나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당부의 말씀이 있으신가요?

김단아(일산동고) 저희 일산동고는 무교인 친구들이 반이라고 할 정도인데 다 친구 따라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기독교가 아니라도 괜찮으니까 그냥 마음이 힘든 친구들이 와도 좋아요. 그리고 저희는 매주 간식 나눠주고 있는데, 배고픈 친구들도 부담 없이 많이 와주세요.

황하진(마송고) 저희는 기도 모임에 이슬람 친구도 오고 불교 친구도 와요. 그래서 종교에 크게 상관 없으니까 오셔서 이 기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홍유은(고양예술고) 저희는 고민이 많은 친구들이 많다 보니 꼭 기

도 모임 와서 같이 기도하면서 고민을 덜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서영(덕이고) 저희는 다 기독교인 친구들만 오고 금철(금요철야)도 많이 참여하는 친구들이 와요. 열심히 할 생각만 있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최태량(동패고) 지금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 공부도 해야 되는데 너무 감사하고 고3인 나경 누님 너무 감사합니다!!

김단아(일산동고) 아니 뭐야!! 저희 동고 친구들도 만만치 않게 잘하고 있어요. 항상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도 고3이 많아요. 수능 파이팅! 고2도 내신 파이팅!

최아인 기자 마지막으로 각 학교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태량(동패고) 동패고가 짱이죠.

김단아(일산동고) 미안한데 일산동고가 훨씬 좋아요.

문서영(덕이고) 우리 고3 동혁 선배! 저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카톡도 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진짜 멋지십니다.

홍유은(고양예술고) 승아 언니! 늘 너무 잘하고 있고 입시 파이팅 해!

김단아(일산동고)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세요!!

최아인 기자 모두들 바쁘신 가운데 인터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학교의 기도 모임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간식과 함께 찰칵! 일산동고 학생들의 모습
2. 방성빈 목사님, 이국민 전도사님과 찰칵!
3. 지원군 출동! 이국민 고등부 전도사님과 동패고 학생들의 모습
4. 기도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 광성드림학교 학생들
5. 벤치에서 기도 모임을 진행하는 고양예술고 학생들의 모습

1	2
3	5
4	

한국교회와 여성 ③

기획 김형수 기자

한국교회와 여성,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침내 집 밖으로 나온 이 땅의 크리스천 여성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놀랍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위해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폭력과 압제에 저항하며 기도의 불길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권리를 위해 그녀들은 성큼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지난 이야기 요약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집안에만 있던 여성들이 교회에 다니고, 한글 배우기를 통해 성경을 읽으며 세상의 정보를 접하고 사회 현실을 파악했다. 또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학교에서 신식(서양문명) 교육을 받게 되었다.

교육받은 기독교 여성들은 일제의 식민 지배로 주권을 잃은 우리나라를 되찾는 3.1 운동에 참여했고, 여성 계몽의 실사구시 사회적 지평을 넓혔으며, 교회 안에서 제도적인 남녀동등을 위해 힘쓰고 애썼다.

교육받은 기독교 여성들의 생각과 실천 (1919년~1930년대)

글 임희국(장로회신학대학교 명예교수)



1 1919년 3.1 운동 참여한 기독교 여학생들¹⁾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서울 파고다 공원에 모인 군중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직후 거리로 나가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했다. 시위대 일부는 일본 영사관으로 향했고 또 다른 일부는 일본총독부로 향했다.

3월 5일(수) 오전 10시경 기독교 학교 여학생 김설죽(18세)은 종로에서 일어난 독립 만세 시위에 참여했다. 그녀와 함께 35명의 여학생이 체포되었다. 김설죽은 양손이 묶여서 종로경찰서로 연행되었다. 경찰서에서 그녀는 구타당하며 취조받았다. 취조관은 “기독교인인가?” 심문했고, “그렇다.”고 대답하자 갖은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어깨와 얼굴을 심하게 때렸고, 그 다음엔 다리, 어깨, 발 등의 신체를 마구 몽둥이로 두들겼다. 몸을 가눌 수가 없었던 그녀는 한동안 앙금앙금 기면서 다리를 뻗어 질질 끌고 다녀야 했다. 그녀는 수십 명이 갇힌 좁고 열악한 구치소에서 지내며 3일 동안 취조받았다. 3월 9일(일) 오후 6시 30분 김설죽은 서대문형무소로 이감되었다. 이곳에서 그녀는 18일 동안 수감되었다.

같은 날(3월 5일) 어느 기독교 학교 여학생은 남대문에서 출발하는 독립 만세 시위에 가담하려고 그곳으로 가던 도중에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경찰관이 그녀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며 종로경찰서로 연행했다. 이날 체포된 75명의 남녀(여성(여학생) 35명, 남성 40명)가 작은 방에 갇혔다. 그 이튿날부터 5일 동안 그녀는 취조받았는데 매번 갖은 고문을 당했다. 그녀는 서대문형무소로 이송되었다. 그녀는 알몸으로 신체검사를 받은 후 감방에 수감되었다.

평양에서 3월 3일(월) 시위 도중 체포된 기독교 여성(21세)이 경찰서로 연행되어 심문받았다. 먼저 연행되어 온 여성들이 심문받고 있던 참이었다. 의자에 앉은 그녀는 두 팔이 의자 뒤로 잡아당겨져 결박당한 채 심하게 구타당했다. 그녀가 기절하면 조사관이 그녀에게 찬물을 끼얹었다. 기



1919년 3.1운동.
기독교 학교 여성들의 독립 만세 시위(서울)



3.1운동을 벌이다 시위 도중 체포되어 연행되는
부녀자들

1) 이하의 글은 3.1운동의 목격자이자 증인인 내한 선교사 소안론(William L. Swallen)이 기록 자료를 수집하여 일평생 보관했던 자료집을 발췌하여 서술했다. 소안론(William L. Swallen) 자료수집, 『삼일운동과 일제의 박해. 당시 외국 선교사들이 목격, 보고한 참혹한 실상』, 김윤찬 보관, 김혜성 번역, (경기도: FCJC출판사, 2012).



‘대한민국애국부인회’ 간부진-간호사들

절했다가 깨어나면서 한기가 들어 “춥다.” 고 했는데, 경찰이 그녀의 몸을 담뱃불로 지졌고 또 다른 경찰은 뜨겁게 달궜진 쇠덩이로 그녀의 몸을 지졌다. 수감자 중에서 기독교 학교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자들에게는 특별히 가혹하고 잔인했다.

부산에서는 3월 11일 밤 9시에 기독교 일신(日新)여학교 교사·학생들의 만세 시위가 시작되었다. 이 학교에서는 교사 주경애·박시연과 고등과 학생 김응수 외 11명이 준비했던 태극기를 손에 들고 “독립 만세”를 외치며 좌천동으로 행진했다. 시위대가 순식간에 수백 명으로 불어났다. 약 2시간 동안 만세 시위가 진행되었다. 일본 헌병과 경찰이 출동하여 시위대를 진압했다. 교사와 학생들이 체포되어 연행되었고, 이들에게 심한 구타와 고문이 가해졌다.

일신여학교 교장 선교사 데이비스(Margaret S. Davies)가 시위 학생들의 연행 소식을 듣고 거리로 나갔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교장은 경찰서 유치장에 며칠 동안 구금되었다. 경찰의 문초가 여성 교장에게 극심한 모멸감을 안겨주었다.

4월 8일에는 부산진 거리에서 훨씬 더 큰 규모의 독립 만세 시위가 일어났다. 부산진공립보통학교 학생 김애련·김호봉·이갑이 등의 주도로 일신여학교 학생 50여 명과 주민 수백 명이 좌천동 신작로에서 독립 만세 시위를 벌였다. 이날 5명이 체포되어 연행되었다. 그러나 독립 만세 시위는 꺾이지 않았다. 시위는 이튿날과 그 이튿날에도 계속되었다. 경찰서에 연행된 교사 주경애와 박시연은 징역 1년 6개월을, 11명의 학생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부산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2 ‘조선여자기독교청년연합회(YWCA)’,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 만주에 여성 선교사 파송



조선여자기독교청년연합회(YWCA, 1926년)

민족 독립을 위한 3·1운동이 좌절되었다. 일제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기를 고대하던 기독교 여성들의 사기가 위축되었다. 그러나 이대로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 없던 여성들이 새 길을 모색했는데, 실력양성운동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이에 1923년 ‘조선여자기독교청년연합회(YWCA)’가 창립되었다. 이 단체는 실력양성론에 기반한 여성 계몽과 생활 개선(위생)에 힘썼다.

여성 계몽을 위한 시급한 사업은 문맹 퇴치였다. 그 당시 우리나라 여성 대다수가 학교 교육을 못 받아서 글을 읽지 못했기에, 문자 해독과 글 읽기가 대다수 여성에게 절실했다. 글을 읽어야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이를 통해 현실 사회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YWCA는 저녁에 여성들이 공부하는 야학을 열었다. 이 학교에서 여성들이 한글 읽기와 쓰기를 배웠고 그다음 성경, 음악, 산수, 영어, 그리고 기술(뜨개질)을 배웠다.

같은 해(1923년)에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가 창립되었다. 이 단체는 일본의 나쁜 퇴폐문화(예, 술·담배·아편·공창(창녀촌) 등)가 국내로 흘러들어와 민족혼을 혼미하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섰다. 이 단체와 YWCA가 연대하여 금주, 금연, 그리고 절제 운동을 전개했다. 이는 당시의 실력양성운동에 보조를 맞춘 것이었는데, 실력양성운동은 물산장려운동(경제적 자급자족, 상공업 진흥, 국산품 애용)으로 펼쳐지면서 경제 자립을 통한 민족 독립을 의도했다.

또한, 정신여학교 출신 김순호 등이 중국과 만주에서 여전도회전국연합회 파송 선교사로 사역했다.



여전도회전국연합회가 중국 산둥에 파송한 첫 여성 선교사(1931년 9월)-김순호



최초의 여성 선교사 김순호의 미소 (고방지일 목사 제공)

3 교회에서 제도적인 남녀동등권을 요구

1922년 제정된 한국 장로교회 헌법 가운데 정치의 원리는 민주공화제와 대의민주주의이다. 그런데 교회에서 여성은 대의민주주의 제도에서 소외되었다. 여성에게 교인 대표인 장로가 가지게 되는 치리권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에 이의를 제기한 함경남도 함남노회 소속 여성(여전도회) 104명이 연서로 서명하여 장로교 제22회 교단 총회(1933년)에 “여자에게도 장로의 자격을 부여하라.”라고 요청했다. 여성도 교회에서 장로로 선출되어 교회 운영에서 남녀동등권이 법과 제도로 마련되기를 청원했다.

그러나 그 당시 장로교 총회는 교단 헌법 정치 제5장 3조(“장로의 자격: 만 30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흠 없이 5년 이상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디모데전서 3장 1~7절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를 들어 이 요청을 허락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청원한 여성들은 총회 결의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 이듬해에 여성 639명이 6월에 열린 제19회 함남노회에서 다시 한 번 여성의 교회 치리권 청원을 연서로 제출했다.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성에게도 목사의 자격을 부여하라고 청원했다.

이때 여성 치리권 청원을 지지하는 남성 목사들이 있었는데 장세환, 김춘배 등이었다. 이들은 장로교 교단 주간신문 『기독교신보』에 기고한 글로 지지했다. 그러나 그 입장에 반대하여 반박하는 목사들도 있었는데 채정민 등이었다. 그도 역시 『기독교신보』에 기고한 글로 반론을 제기했다. 그러자 여성 치리권에 대한 교단 신문지면 논쟁이 일어났다.

그런데 교단 총회는 여성 치리권을 지지하는 김춘배의 글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고린도전서 14장 34~35절에 대한 김춘배의 해석을 문제 삼았다. “여자는 조용하여라, 여자는 가르치지 말라. 2,000년 전, 한 지방교회의 교훈과 풍습을 만고불변의 진리로 알고 그러는 것도 아닐 터이다.”라고 서술한 김춘배의 글에 대하여 교단 총회의 총대 일부가 이를 -여성 치리권을 지지하는 해석으로 보지 않고-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 문제 삼았다. 교단 총회의 정치부는 라부엘(Stacy L. Roberts), 부워럼(W. F. Bull), 박형룡, 럼봉남, 윤하영 등을 연구위원으로 선임하며 이 안건을 연구하여 총회에 보고하도록 명했다.

연구위원회는 김춘배의 성경해석이 ‘오류’라고 보고했다. 그 보고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자에 대한 여자의 ‘종속적 지위’를 확정하고 성경을 근거로(창 3:16 등) “여자에게 교권을 허락할 수 없다.”고 최종 판정을 내렸다. 이에 김춘배는 위원회의 보고서가 발표되기 전에(1935년 2월) 연구위원회 앞으로 석명서(釋明書)를 내고, 『기독교신보』에 게재했던 그 글의 본래 의도는 “성경 해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로교회 안에 벌써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여성 교역자인 전도부인)에 근거해서” 그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얘기한 것일 뿐이고 그렇지만 그 글로 말미암아 “만약 성경의 권위와 신성을 손(損)하고 교회에 폐해”가 오면 그 책임을 통감하고 본인의 입장을 “취소”하겠다고 변호했다.

연구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장로교 교단 총회(제24회)는 약 3년 동안 끌어온 여성 치리권 청원에 관한 문제를 매듭지었다.

그로부터 60년 후, 여성 치리권 청원은 1994년 장로교 총회(예장통합 교단)에서 가결되었다. 장로교회 여성들의 남녀동등권 청원이 60년을 기다린 끝에 성사되었다. (다음 호에 계속)

맛디아 선교팀

글 장은영 권사(맛디아 선교팀 팀장)



맛디아 선교팀이 만든 생리대를 받고 기뻐하는 우간다 소녀들

'맛디아 선교팀'이란?

처음엔 이름도 없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몇몇이 모여 시작한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새벽예배 말씀 가운데 '맛디아'라는 이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맛디아 - 유다의 빈자리를 채운 열두 번째 제자',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 저희는 이 이름을 마음에 품고, '맛디아'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여성용품, 특히 생리대를 만들어 해외의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보내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따라 흘러간 62만 원

2023년 스리랑카로 단기선교를 다녀온 한 친구의 간증을 듣고, 여전도회에서 자연스럽게 물품을 모아 보내게 되었죠. 택배비를 아껴 더 많은 물품을 보내고자 새벽부터 몇몇 친구들과 함께 화성 물류센터까지 직접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 일을 의미 있게 보신 한 권사님께 찬조금 100만 원을 내주셨어요. 저희는 그중 택배비로 일부를 사용하고, 남은 62만 원을 어디에 흘러보내야 할지 기도하며 고민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우연히 '땅끝선교'에서 활동하던 또 다른 권사님께 생리대

선교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청소년들은 생리대가 없어서 그날이면 일부러 긴 치마를 입고 휴면지로 덮거나 머플러를 대신 사용하는 현실, 심지어 팬티조차 없어 성폭력에 쉽게 노출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담당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사역을 접기 일보 직전이었던 권사님은 "하나님의 응답"이라며 저희를 정말 기쁘게 반겨주셨어요. 좀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원지 모를 하나님의 계획이 느껴졌기에 그냥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5명에서 30명, 사랑으로 부흥한 맛디아

24년 1월 6일이 첫 모임이었는데요. 여전도회 친구 5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이후 단위 여전도회 단독방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니 흔쾌히 동참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겼어요. 맛디아가 저희 여전도회를 부흥시킨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나이, 출석교회가 모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 하나로 모였습니다. 5명으로 시작해 일 년이 조금 지난 지금은 30명의 지체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샘물처럼 마르지 않는 공급

힘들다기보다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괜한 걱정이었어요. 든든한 '백', 하나님을 감뻑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도 전적으로 자비량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넉넉하진 않아도 샘물처럼 마르지 않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문가들을 붙여주셔서 지금은 체계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어요. 사실 생리대 하나를 만들기까지는 원단을 연단하고, 본을 뜨고, 자르고, 시침하고, 미싱을 돌리고, 오버로크 처리하고, 단추를 달고, 포장하는 것까지 수많은 공정이 필요합니다. 처음 5~7명이 시작했을 땐 정말 벅찼지만, 지금은 함께하는 손길이 많아져 이 모든 과정을 거뜰히, 그리고 넉넉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보통 생리대에는 십자가 모양이 들어가지만, 이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에는 'MADE IN KOREA' 문구만, 그것조차 허용되지 않는 나라에는 '맛디아'라벨만 붙여 보낸다



9번의 만남, 400개의 기적

2024년 3월 11일, 처음으로 생리대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고 배우기 시작한 우리. 처음 한 개의 생리대를 만들기 위해 '미싱을 돌리는 친구, 천을 밀어주는 친구, 천을 당기는 친구' 이렇게 세 사람이 한 몸처럼 붙어 움직여야 했습니다. 뺨뺨뺨... 하지만 정성 가득한 시작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5월 20일, 400개의 생리대를 몽골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숨씨가 서늘하다 보니 일주일 만에 한 번 모이는 걸로는 너무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팀원들이 각자 미싱을 구입해 집에서 생리대를 만들어 왔어요. 단 9번의 만남으로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누가 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초보자들이 이제는 전문가가 되었고, 팀원도 늘어나 속도와 효율도 더해졌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수를 늘리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스리랑카에서 북한까지, 복음의 바느질

2024년 5월부터 12월까지 스리랑카, 태국, 몽골, 미얀마, 피지(2회), 우간다 등 총 6개국에 약 2,800개의 생리대를

보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북한 여성 노동자들을 위해 러시아 선교사님께 200개를 보내드렸습니다.



스리랑카 메리세드 여성들에게 전달된 맛디아 선교팀의 생리대

맛디아, 그 사랑의 이름으로

시간 조율이 가능한 직장인 중에는 월요일마다 아예 출근을 쉬고, 맛디아로 달려오는 팀원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오전엔 맛디아에서 봉사하고, 오후엔 자신의 사업장을 섬기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기도 해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맛디아를, 그리고 맛디아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수많은 여성들요.

이 자리를 빌려 하나님께, 그리고 함께해 준 모든 팀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맛디아 여러분!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겠습니다.



해외 여성들에게 전할 생리대를 만들고 있는 맛디아 선교팀. 매주 월요일 9시 30분에 모여 30분간 함께 기도한 후, 생리대 만드는 작업을 시작한다

광성드림학교의 '묵상'

글 김정준 교목(광성드림학교)

광성드림학교의 교사들은 매일 아침 출근과 함께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교사들은 그 묵상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각자의 반으로 들어가 담임교사로서 학생들의 묵상을 인도합니다. 학생들은 전날 저녁, 가정에서 미리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이 공동체적인 나눔에 참여하며 하루를 엮습니다

매일 오후 7시가 되면, 묵상 밴드에는 새로 묵상할 말씀 본문과 교목의 짧은 묵상 글이 올라옵니다. 학생들은 각 가정에서 이 말씀을 미리 묵상해왔기 때문에 교실은 말씀을 처음 읽는 곳이 아니라 이미 읽은 말씀을 나누는 풍성한 은혜의 장소가 됩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학년마다 있는 성경 수업이 말씀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초등학교 1학년은 창세기를 중심으로 배우고, 2·3학년은 구약울, 그리고 4학년은 신약 전반의 내용을 배웁니다. 5학년 때는 교리와 역사를 기반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고, 6학년 때는 본격적으로 자기가 묵상한 것을 가지고 발표하는 연습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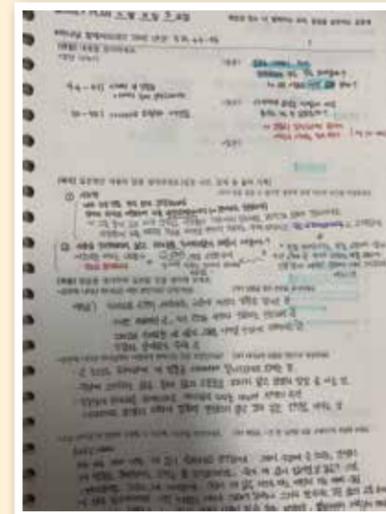
이렇게 준비된 말씀들은 설교의 형태로 다듬어지면서 설교대회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발된 학생은 금요 초등예배시에 설교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묵상한 내용을 진지하게 노트에 기록하는 중등과정 학생들



기도 중인 초등 드림이들



고등과정 학생이 적은 묵상 노트



고등과정 학생들의 묵상 시간



매년 주제는 조금씩 변화하는데, 중학교 1학년은 성경의 파노라마, 2학년은 기독교 세계관, 3학년은 교회사를 주제로 성경 수업을 진행합니다. 고등학교에는 종교학 수업 시간을 통해 객관적 믿음에 관한 질문을 심화 탐구합니다.

광성드림학교의 묵상은 방학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말씀식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방학 성경통독은 다음 학기 묵상할 말씀을 가족끼리 함께 읽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족이 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그림으로써 다음 학기를 영적으로 준비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학부모 모임으로 이루어지는 '성경통독'도 각 가정의 묵상을 돕습니다. 별도의 모임을 통해 친구약 전체를 통독합니다. 이러한 '말씀 읽기'는 각 가정의 묵상 문화에 깊이를 더하는 한편, 말씀 중심의 학교 생활을 하는 데 큰 동력이 됩니다.

광성드림학교는 교사, 학생, 학부모가 모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묵상 문화가 발전하고 확장되어 세계를 섬기는 주의 제자로 거듭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태권도로 피워낸 성장의 열매 광성드림학교 태권도 시범단 1기를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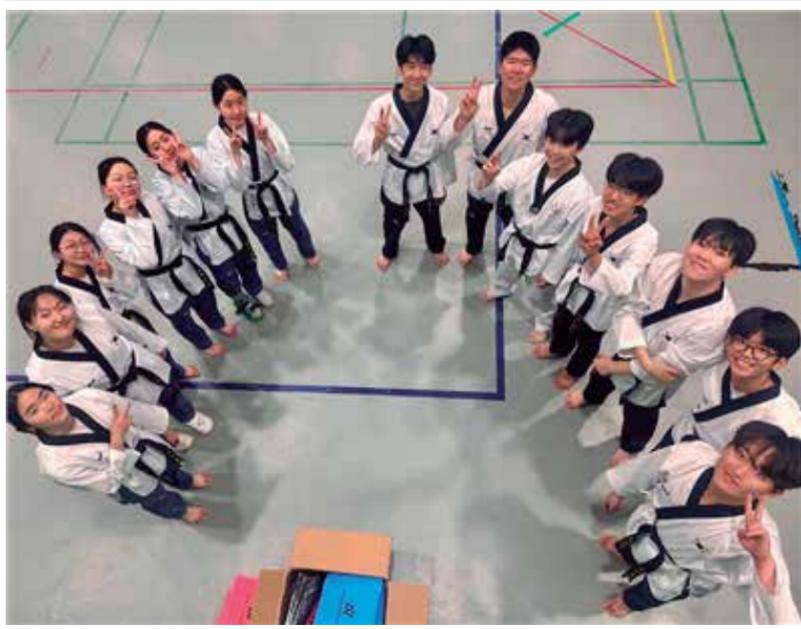
글 전하빈 학생기자

올해 광성드림학교에 특별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단정한 도복을 입은 학생들이 힘찬 기합과 함께 발차기를 연습하는 모습, 함께 땀을 흘리며 하나의 무대를 준비하는 열정은 이제 이 학교의 또 하나의 풍경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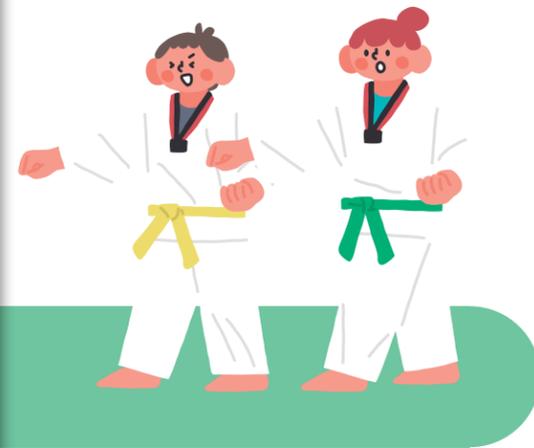
바로 '광성드림 태권도 시범단 1기'의 이야기다. 체육과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는 김한별 교사는 올해 처음으로 광성드림학교 내에 시범단을 조직했다. 중·고등학생 가운데 태권도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해 정식 시범단을 창설한 것이다.

태권도 시범단 담당 교사이자 중·고등학생 태권도와 체육을 가르치는 김한별 교사는 어떠한 계기로 시범단을 만들었느냐는 질문에 광성드림학교의 특색 교육으로 정규 수업 내에 태권도가 포함될 수 있었지만 그만큼 태권도에 대한 배움의 시간이 한정되는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때문에 태권도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보며 태권도를 통해 학교 내외로 모범을 보이는 태권도 시범단을 창설하게 되었다고 답했다.

현재 시범단은 매주 1회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기초 체력과 발차기를 위한 기본기 훈련을 하고 점차 기술의 난도를 높이며 점진적으로 훈련의 강도와 기술 수준을 높여가며 연습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단원들 모두가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보이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학교 행사를 위한 태권도 시범 공연 준비를 할 것이라고 한다.



⊧ '광성드림 태권도 시범단 1기' 단체 사진



⊧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성장하는 태권도 시범단

시범단이란 단순히 뛰어난 무술 실력을 선보이는 모임이 아니다. 김한별 교사는 시범단 단원들이 단순히 태권도 실력만을 갈고닦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태권도 시범단원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학교생활, 수업, 태권도 활동 등 다방면으로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또 태권도 발차기 기술 수준의 향상을 통해 태권도라는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태권도라는 도구를 통해 학교가 추구하는 인재인 '세계를 섬기는 기독교인'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활동이 학생 개개인의 삶에 미치는 변화다. 김한별 교사는 "학생들이 태권도 기술의 성장뿐 아니라 시범단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학업과 신앙생활에서도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범단 활동을 통해 단원들이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자라나는 것을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끝으로 김한별 교사는 시범단 1기 단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했다.

"명예로운 광성드림 태권도 시범단 1기와 함께할 수 있어 또한 영광이고, 잘 부탁드립니다."

아직은 첫걸음을 내딛는 단계이지만, 광성드림학교 태권도 시범단은 학교와 학생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귀한 사명감을 품고 있다. 이들이 흘리는 땀과 훈련의 시간이 앞으로 어떠한 열매로 맺힐지 기대가 크다. 그들의 동작 하나하나가 단지 무술이 아닌 믿음과 순종, 그리고 섬김의 표현이 되기를 바란다. 태권도는 기술 이전에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이며, 시범은 그들에게 단순한 공연이 아닌 공동체 앞에서 정성과 헌신을 드러내는 예배와도 같은 순간일 것이다.

시범단원으로 선발된 아이들은 그 자체로 학교를 대표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존재이며, 이를 통해 책임감과 인내, 겸손을 배워가고 있다.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광성드림 태권도 시범단 1기는 단지 운동 실력을 갈고닦는 팀이 아니다. 이들은 학교와 지역, 그리고 더 넓게는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받는 중이다.

매 훈련에서, 매 연습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몸과 마음을 정직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앞으로 이 시범단이 걷게 될 길은 아직 멀고도 길다. 그러나 그 길 위에서 학생들은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며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이 시범단의 발차기 속에 담긴 정성과 영성이 광성드림학교의 정신과 비전을 대변하는 상징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하나님께서 이 시범단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훈련 속에 함께하시기를 기도하며 광성드림 태권도 시범단 1기의 시작을 진심으로 축복한다.

축복의 통로, 임방글 집사님

글 우주희 기자

초등5부 부장을 맡아 일하는 임방글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 처음 등록된 후 약 삼 개월 만에 부목자로 섬기게 되었다. 얼마 후 목장이 늘어나면서 목자를 맡게 되었다. 그리고 이후로 십 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많은 사역과 훈련을 거치게 되는데, 그중 초반에 받은 쯔이 제자훈련이 그에게 신앙의 이정표를 제시해 준 중요한 훈련이었다고 한다.

쯔이 제자훈련

인생의 큰 사건들을 겪으면서 말씀의 능력에 갈급할 때, 쯔이 제자훈련을 만났다. 그곳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과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변치 않는 진리로 내 삶에 임재함을 경험하면서 어릴 때부터 들어온 모든 말씀 조각들이 하나의 퍼즐로 완성되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 말씀을 통해 양육과 가정, 특히 사역의 원칙이 바르게 잡혔다.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사람의 권유나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과 섬김을 위해 은혜를 공급받는 자리도 함께 가져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감사하게도 그 후 모든 사역의 자리가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초등5부 사역

작년에 초등5부 부장 일을 시작하면서 강도가 있는 사역인 지라 그전까지 섬기던 자리들을 내려놓고, 영적 공급을 위

해 '예수마음 중보기도학교(줄여서 예마중)'에 집중적으로 참여했다. 아이들, 교사, 전도사님까지 섬기려면 내 안에 있는 것만으로는 줄 것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에, 하나님께 더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여 시작하게 되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했는데, 이 훈련이 참된 위로와 힘이 되었다. 그에 앞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가정'도 시작했는데, 이것도 말씀을 매개로 한 기도 훈련이었기에 서로 연결이 잘 되었고, 두 가지 모두 큰 영적 공급원이 되어 주었다.

예마중의 세대교체

예마중에서는 몇 해 전부터 세대교체를 위해 같이 기도하고 있었다. 20여 년 넘게 이어온 평신도 사역이었기에 세대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교가 종료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내부적으로 공유되어 있었다.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훈련이 될 수도 있다는 말들도 들었다. 상반기 훈련과 하



≪ 알파 섬김



≪ 예마중 강의

반기 후속 모임 이후, 예마중 주강사 중 한 분인 홍희란 장로님이 강의를 부탁하셨다. 제의를 받는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이지만 기도하고 싶었을 뿐 자신의 어떡함을 이유로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새로운 예마중 강이자 중 하나로 세워진 임방글 집사는 그래서 올해부터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축복의 통로

예전에 알파 리더 권유를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생각했다가 전혀 다른 세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 같아서 결국 리더를 맡았던 일이 있었다. 부르신 자리라면 성령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저 통로로서겠다고 기도하며 나갔다고 한다. 놀랍게도 다른 훈련이나 공급의 자리에서 듣고 배운 것들이 때마다 흘러보내야 하는 자리에 꼭 필요한 말씀들이었다. 그렇게 리더의 자리에서 자신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맡겨주심 때문에 얻게 되는 은혜와 여러 체험이 있었고,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때 자신이 통로로 선다는 게 뭔지를 배우게 되었다.

광성교회 제자훈련

그리고 드디어 올해, 영적 공급의 자리로 선택했던 예마중이 이제 다시 봉사의 자리가 되어서 새로운 공급처로

제자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예습하면서 공부해 가는 말씀과 훈련의 자리에서 듣고 배우는 내용, 목사님이 정리 해주시는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모두 강의와 연결되는 자료가 되었고, 심지어 수요예배도 어쩌면 그렇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담아주시는지 참으로 신기했다. 수요일 예배와 훈련을 통해 받은 영적 공급으로 목요일의 강의와 섬김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강의를 마친 후 돌아와보니,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마중 훈련을 받으러 온 분들을 모두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미리 말씀을 넣어주셨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우연이 없으신 하나님 안에서 지난 모든 훈련의 결실들이 하나로 관통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영적 기념비를 나눌 사명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서 있을 때, 많은 영적 기념비들이 세워진다는 집사님. 때로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을 옆으로 보내주시 때가 있었다고 말한다. 그럴 때 그 중 하나의 기념비를 꺼내며 자신의 길에 함께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서로 나누게 되는데, 이것이 집사님의 소소한 사명이라 고백해 주셨다. 집사님이 축복의 통로로 서서 이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할 때, 언제나 그 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줄 믿는다.



≪ 말씀으로기도하는가정팀



≪ 마더와이즈

자전거 · 마라톤 선교팀 김옥현 장로 두 발을 구르며 인생의 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

글 임보미 기자

싱그러운 녹음과 시원한 바람이 야외 활동을 부르는 계절, 여름. 동네 산책 정도가 야외 활동의 전부가 되기 쉬운 시니어에게도 가벼운 운동 하나쯤 시도해 보기에 딱 좋은 계절이다. 하지만 함께할 동료가 없거나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자전거와 마라톤 선교팀에 참여하며 운동으로 활기찬 인생을 열어가고 있는 김옥현 장로(71세)를 만나서 그 해답을 들어보았다.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퇴직 후 딸과 사위가 자전거 한 대를 선물해 줬는데, 사실 그때는 자주 탈 일이 없었지요. 그러다 4~5년 전 교회에 자전거 선교팀이 생긴다는 소식이 우연히 합류하게 되면서 라이딩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지금까지 꾸준히 모임에 참여하며 즐겁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선교팀은 어떤 모임인가요?

50대에서 70대까지, 그 중에서도 60~70대의 시니어들이 주축이 된 팀으로 현재 10명 내외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토요일에 모여 가까운 고양·파주는 물론 아라뱃길, 양평, 춘천 등 자전거 전용도로가 잘 조성되어 있는 코스를 달리며 거리와 풍광을 즐기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회원들과 신앙 안에서 운동하고 교제하는 건강한 모임입니다.



⋈ 라이딩 중 파주출판단지 공원에서



⋈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자전거 타기 좋은 계절, 여름

⋈ 여의도 불패마라톤 대회에 함께 출전한 마라톤선교팀원들과



⋈ 자전거와 마라톤으로 활기찬 인생을 열어가는 김옥현 장로



⋈ 통일로 불려판전기념비 앞에서

자전거 선교팀에서 함께 자전거를 타면 어떤 좋은 점들이 있나요?

나이가 들수록 혼자서 아닌 공동체나 모임에 속해 있어야 새로운 기회들이 찾아오고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거리나 기록 등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달리고, 맛있는 식사와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유를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기에 회원 모두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자전거와 두 발만 있으면 비용도 거의 들지 않지요.

마라톤 선교팀에도 참여하신다고요?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반에 약 30명 정도 모여서 일산호수공원을 돌며 운동합니다. 20년 이상 참여하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함께 대회에도 출전하는데 10km 마라톤은 10회 이상 완주한 것 같습니다. 마라톤 선교팀은 자전거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4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운동하며 교제하는데, 운동이라는 공통의 관심사가 있기에 대화가 잘 통하고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와 마라톤이 단순한 운동 이상의 의미일 것 같습니다.

시니어에게는 체력이 모든 것의 베이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운동을 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자전거 같은 경우도 내가 사는 지역을 넘어 다른 풍경을 경험할 수 있어서 매번 새로운 곳을 여행하는 기분이 들어요. 한번 자전거에 올라타면 두 발을 움직이지 않고는 지금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지요. 계속해서 두 발을 구르며 페달을 밟아야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듯이 어느 때 에라도 하나님께 쉬지 않고 나아갈 때 참된 행복과 의미가 찾아오는 것, 이것이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니어의 연륜이 더해지니 운동은 그저 몸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 자기성찰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통로가 된다. 운동을 통해 인생의 참 의미를 되새기는 김옥현 장로의 모습에서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건강한 액티브 시니어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더 많은 시니어가 운동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을 가꾸어 가길 소망해 본다.

크리스천이 바라보는 글로벌 경제

트럼프 행정부가 쏘아 올린 상호관세와 보복관세라는 공 글로벌 경제와 한국 경제의 향방은?

글 박길환 기자(대구대 공공인재대학 교수, 경제발전 전공)

2025년 초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4월 대부분의 무역상대국에 10%의 기본관세와 함께 57개 무역상대국(지역)에 대한 차등적인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를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 서명 후 90일인 7월 8일까지는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무역상대국에 상호관세 발효를 유예하면서 실제로 5월 초 첫 무역 합의를 영국과 이뤄내는 한편 중국 등 여러 국가에 대한 압박과 협상을 이어나가고 있다.

한편 영국은 이미 나머지 56개국과 함께 상호관세를 적용 대상으로 발표되었음에도 4월 발표 당시 사실상 기본관세율인 10%가 적용된 국가로, 미국에 대해서는 2024년에 이미 199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었다. 영국은 이번 무역 합의에 따라 소고기와 농산물 시장을 무관세로 개방하고 14조 원 상당의 보잉 항공기를 구매하기로 약속하는 대신, 25% 수준이었던 자동차에 대한 대미 관세율을 10%로 인하하고, 알루미늄과 철강에 대한 25% 관세의 인하 검토 등 일부 품목별 관세율 인하를 혜택으로 가져올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이 앞으로 관세 협상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밝힌 이번 협상은 대미무역 적자국이면서 전통의 최대 우방국인 영국과 이루어진 것으로 향후 보편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금번에 발표된 미국의 상호관세는 역사적으로도 이례적인 것으로 '무역상대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액을 미국의 수입액으로 나눈 비율의 1/2'로 계산한 것이다. 마치 1/2이니 '미국의 입장에서는 공정하고 무역상대국은 상호적으로 부과하고 싶으면 하면 된다.'는 논리로 대미 무역적자액이 높은 순으로 높은 상호관세율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2024년 대미 무역적자액이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의 경우에는 미국의 수입액이 4천 4백억 달러에 달하므로 3천억/4천4백억(달러)=0.673이 산출되었으며, 이의 1/2인 0.34, 즉 34%가 상호관세율로 적용되었다. 마찬가지로 2024년 대미 무역적자액이 2천 4백억 달러에 달하는 유럽연합(EU)의 경우에

는 미국의 수입액이 6천억 달러이므로 전자를 후자로 나눈 비율 0.39의 1/2인 0.20, 즉 20%가 적용되었다. 이어 대미 3대 흑자국인 베트남에는 46%, 대만에는 32%, 일본에는 24%, 인도에는 26%, 태국에는 36%, 스위스에는 31%, 인도네시아에는 32%, 그리고 8번째 대미 흑자국인 한국에는 트럼프 미 대통령 백악관 발표기준으로 25%의 상호관세율이 적용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율 발표의 근거가 되는 행정명령 부속서에 명시된 상호관세율은 26%이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소수점 산정의 차이 등의 이유를 들고 있지만, 작은 소수점 차이도 막대한 금액에 해당하고 국가 간 신용과 신뢰의 문제가 되는데도 발표 초기부터 이를 더 철저히 검증하지 않고, 전 세계 여러 국가들에게 혼선을 야기했던 점은 아쉽다. 마치 소수점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첫 번째 카드로 내민 국가별 상호관세율의 대략적인 수준을 보고 이후 국가별로 미국과 진행할 협상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고 메시지를 보낸, 고도의 협상전략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금번 발표는 명확한 메시지 이면에(부속서 상의 수치와 차이 문제와는 별개로, 전체적인 발표와 협상의 국면을 이른바 '허허실실(虛虛實實)' 전략으로 주도하고자 하는) 계산된 듯한 허술함의 양면성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서는 100%가 넘는 보복관세를 적용해 최대 145%의 관세를 부과되 협상에 따라 이를 낮춰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자, 중국 정부는 에너지, 광물, 농산물 등에 대한 수출제한과 보복관세 조치를 단행했다. 결국 스위스 제네바에서 5월 10~11일 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펼친 끝에 5월 12일 미국은 대중국 관세를 (불법 약품 유통 패널티 20%를 적용해) 145%에서 30%로, 중국은 125%에서 10%로 각각 115%씩 관세율을 인하하는데 전격 합의했다.

한편 최근 저가 공급으로 주목받은 중국산 전기차의 경우, 최근

EU도 최대 38.1% 수준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여 관세율이 최대 48.1%에 달하는 실정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EU 역시도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은 이른바 '관세 전쟁'으로 다자간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미 무역 규모가 세계 10위 수준인 우리나라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 그만큼 무역의존도가 높고, 관세와 환율 등 국제경제의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현명한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D램 반도체 시장에서 70% 이상,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20% 수준의 점유율을 보이는 우리나라 반도체는 2025년 초 바이든 행정부의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미국의 대중국 첨단반도체 수출금지 확대와 중국의 국산화 확대에 따라 미국 현지생산과 국내 생산에서 모두 리스크를 안고 있었던 상황이다. 다만 상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수출규제 정책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 170억 달러(예상 투자총액 470억 달러)를 투자해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신규 반도체공장을 조성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지난 바이든 정부 초기에 추진된 인플레이션 감축

법(IRA)에 근거하여 받기로 했던 보조금 지급액이 결국 지난해 말 이미 26% 감소한 47.5억 달러 수준으로 확정되었으며,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 HBM 시장에서 약 70%로 세계 1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SK하이닉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조선업의 경우, 막강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해온 미국 함정들의 내구연한 감소와 노후화, 정비 부문 인력의 감소 및 비용 증가 등에 따라 이미 HD현대와 한화오션은 미 해군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수주전에 참여하고 있다. 다만 MRO 특화 전용 야드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미국의 해외 조선소 활용 MRO의 금지 조항 등 때문에 현실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 역시 산적해 있는 사정이다.

25%의 관세가 예정되어있는 국내산 자동차의 경우, 미국 내 생산분의 경우 관세가 해당되지 않아서 현대차그룹은 지난 4월 2028년까지 자동차 생산 분야의 86억 달러, 부품·물류·철강 분야의 61억 달러, 미래산업 및 에너지 분야 63억 달러 등 총 210억 달러(약 30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백악관 초청 때 발표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관세전쟁'은 지금 현재진행형인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이 이에 지혜롭게 대응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부족한 글을 맺는다.



☞ 상호관세에 대응한 정부기업의 선제적 대미투자 보도(3월 24일, 백악관의 폭스뉴스 인용)

‘고맙습니다’ 릴레이

1. 김근수 이은정 집사님 부부는 박종문 권사님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사람들은 많이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우시고 짝을 지어 전도를 보내셨고, 사도 바울도 동역자들에 대해 깊은 감사를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저희가 이번에 칭찬 주자로 선정한 박종문 권사님은 바로 이러한 주님의 동역자입니다. 사랑부에서도 함께 섬기고 있지만, 야당에 있는 요양병원에 매주 수요일마다 찾아가 예배로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다시 갚을 능력이 안 되는 힘들고 소외된 자들을 말없이 돕고 섬기는 권사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오직 예수님과 어려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살아가고 계신 권사님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권사님과 함께 동역하고 있음에 크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끝까지 함께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 김근수 이은정 집사와 박종문 권사

2. 박종문 권사님은 최재명 장로님께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부활주일 예배에서 큰 은혜를 받고 내려오는데, 오랜만에 최재명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반가운 마음이 가득했는데, 장로님께서 마치 다시 부활하신 듯한 밝은 얼굴로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는 순간 부활의 기쁨이 제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재명 장로님과의 첫 만남은 2018년 '행복한제자학교'에서였습니다. 저는 학생이었고, 장로님은 간사로 함께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장로님을 만날 때마다 늘 반가울 수 있었던 이유는 변함없이 풍성한 함박웃음과 진심이 묻어나는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장로님은 말씀을 전하시다가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시다가도 주체할 수 없는 눈물로 마음을 나누셨습니다. 그 눈물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사람을 향한 깊은 공허가 담겨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온유하고 따뜻한 분이셨지만,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나 공동체의 질서를 해치는 일 앞에서는 단호하고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한 영으로 살아가라."고 꾸짖어 주셨던 장로님의 음성이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하게 들립니다.

특히 공허가 풍성하셨던 장로님은 공동체 속에 깊이 스며들지 못하고 외롭고 부족함 많은 형제자매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따뜻한 위로와 칭찬, 진심 어린 격려와 끊임없는 기도로 그들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장로



⊗ 박종문 권사와 최재명 장로



⊗ 최재명 장로와 이혜주 권사



님은 물질과 시간을 아끼지 않으셨고,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는 갈급한 영혼들에게 영적 마중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성실하고 신실하신 사랑과 헌신 앞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최재명 장로님! 주님 안에서 부활의 기쁨을 온몸으로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공허를 다시 배웁니다. 고맙습니다.

3. 최재명 장로님은 이혜주 권사님께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혜주 권사님께 세 가지 감사를 전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평일 새벽예배 반주를 오랜 시간 감당하시는 모습으로 저와 또 많은 성도들에게 예배자의 참모습을 보게 하시어 감사합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쉽지 않은 일을 감당해 내시는 모습에서 공동체를 사랑하는 자의 용기가 능력 있음을 증거하심을 칭찬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초등부 선생님이 모든 아이들을 웃음으로 대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모습에서 참 스승의 모습을 보게 하시어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도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 찬양대와 교회학교와 건축위원회와 또 여러 소모임 공동체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조용히 함께 기도해 주심으로 중보자의 참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삶과 섬김이 우리 공동체에 큰 은혜요, 귀한 분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 이혜주 권사님은?

‘고맙습니다’ 릴레이는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거룩한빛광성교회 평생교육 기관 광성평생배움터

글 & 사진 이종수 청년기자

광성평생배움터는 거룩한빛광성교회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기관으로, 다양한 연령대와 분야를 위한 강좌가 매 분기마다 열리고 있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60~80개 정도의 강좌가 분기마다 진행되고 있으며, 음악, 미술, 바둑, 한자 같은 어린이 강좌는 물론, 성인들을 위한 음악, 외국어, 건강 관련 강좌도 인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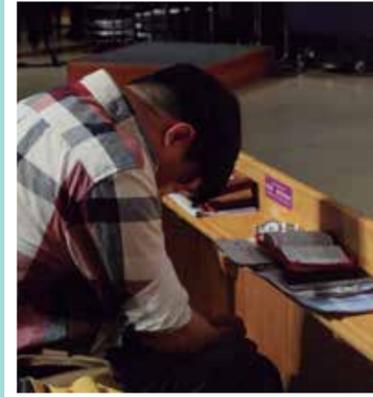
특히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이나 한자 속독 같은 자격증 과정도 활발하게 운영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바로 직업을 얻는 경우도 종종 있다. 사진을 통해 광성평생배움터의 생생한 현장을 함께 둘러보자.





청년광장

YouTube
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
@holylightkwangsungksn



나를 알고, 너를 알고

- 크리스천 신혼부부들의 이야기 -

글 김다빈 청년기자

‘나에게 맞는 배우자는 누구일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할까?’

청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연애와 결혼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게 되죠. 요즘은 특히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결혼한 두 신혼부부를 모셔,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1. 신앙관과 인생의 방향성이 맞는 선화 & 형운 부부
2. 청년부 찬양팀에서 만난 선화 & 형운

선화 & 형운

김다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청년들을 위해 결혼과 연애에 대한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해요

선화 & 형운 안녕하세요. 저희는 거룩한빛광성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류선화, 두형운 신혼부부입니다.

김다빈 두 분의 만남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선화 & 형운 저희는 청년부 찬양팀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함께 찬양팀을 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 점점 친해지게 되었고,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어서 시간이 지나며 점차 호감이 커졌어요. 그렇게 되어 2019년부터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올해 연애 6년 차에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김다빈 그렇군요. 그렇다면 청년이었을 때 결혼을 바라보는 마음은 어떠셨나요?

선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어떤 사람을 원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과 그 부족

함이 채워졌을 때 비로소 나에게 맞는 사람을 만날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먼저 그런 배우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형운 저는 저의 직업을 이해해주는 사람, 또 신앙관과 인생의 방향성이 맞는 배우자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 다. 그랬기 때문에 연애 초반부터 많은 대화를 통해 저와 비슷한 신앙관, 삶의 목표를 가진 아내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김다빈 연애부터 결혼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선화 사실 처음 만났을 때 저희 남편은 제가 그동안 원해 왔던 이상형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하지만 제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인생의 동반자를 소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닌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주신다는 확신으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선화 & 형운 이제는 서로를 통해 완전한 모습으로 함께 성장해나갈 미래가 기대됩니다.



다은 & 시온

1.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완벽한 형태의 교회라는 말을 알아가고 있는 다은 & 시온 부부
2. 신학대학원 동기인 다은 & 시온

다음으로 시온님과 다은님,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두 분은 현재 거룩한빛광성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전도사님 부부이신데요,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다은 & 시온 안녕하세요. 저희는 거룩한빛광성교회 초등 2부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시온 전도사, 그리고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김다은 전도사입니다.

김다빈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두 분께서도 올해 결혼하신 신혼부부라고 들었습니다. 두 분의 만남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다은 & 시온 저희는 2021년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동기로 만나게 되어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학년에 3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같은 교수님 반으로 배정받아 3년간 알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총회 파송 56기 견습선교사로 각각 스페인과 스리랑카로 1년간 다녀온 뒤, 2024년에 거룩한빛광성교회에 함께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교회를 지원한 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선교지에서 한국으로 돌아와 연락해보니 각각 광성교회로 부임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학대학원 동기이자 견습선교 동기였던 저희는 광성교회에 와서 함께 사역하는 동료가 되었고, 그 이후 서로 마음을 확신하게 되어 연인이 되었습니다.

김다빈 청년이었을 때 결혼을 바라보는 마음은 어떠셨나요?

시온 결혼에 대해서는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외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었고, 시간이 1년, 2년 흐를수록 ‘정말 나의 상황, 현실에 딱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는 거의 배우자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자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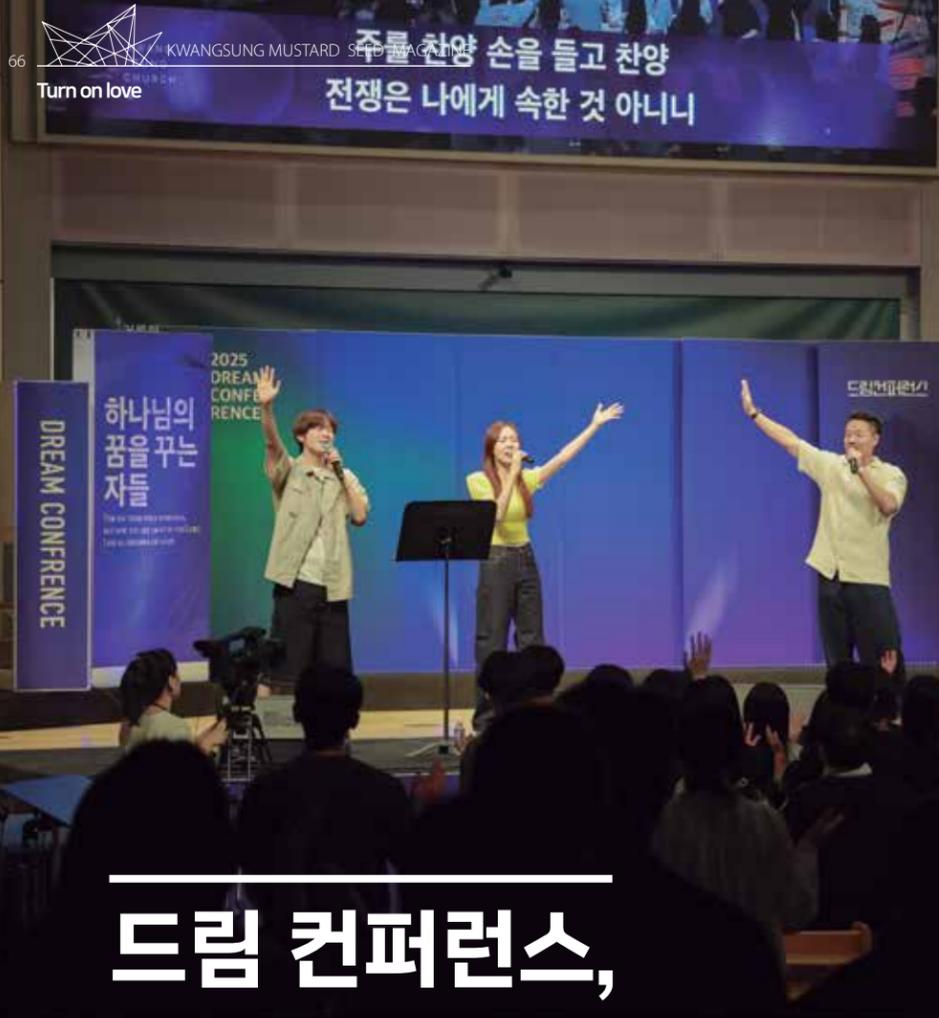
다은 저는 항상 저에게 꼭 맞는 배우자를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만나기 전에 작성한 저만의 배우자 기도 목록이 있었는데,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라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놓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김다빈 연애부터 결혼까지의 과정을 통해 새롭게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다은 결혼 이후, 남편은 우리집의 ‘말아들’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함께 의지해 살아가게 된 것이 참 행복합니다.

시온 아내와의 연애를 통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대감으로 결혼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완벽한 형태의 교회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문장의 의미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김다빈 선화, 형운님! 그리고 다은, 시온님!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된 두 가정을 축복하며, 인터뷰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드림 컨퍼런스,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 된 청년들의 뜨거움 외침

글 조희성 청년기자

연합과 헌신의 시간, 드림 컨퍼런스 2025

지난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거룩한빛광성교회에서 2025 청년 예배 컨퍼런스, 드림 컨퍼런스(DREAM CONFERENCE)가 ‘하나님의 꿈을 꾸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자들’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되었습니다. 광승현 위임목사를 비롯하여 김상인 목사, 주성하 목사, 차선우 목사 등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강사진과 뜨거운 찬양으로 예배를 인도한 예수전도단 화요모임, 딜리버리 프로젝트, 비저너리워십 등 다채로운 워십팀이 참여하여 풍성한 은혜를 나눴습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는 고양·파주 지역 청년들과의 연합 오픈 워십으로 진행되어 지역 청년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고 함께 미래를 향한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소명 앞에 선 청년들, 하나님의 꿈을 노래하다

컨퍼런스 기간 동안, 강사들은 신앙의 가치와 청년기 삶의 열정을 다양한 관점에서 재조명하며 말씀을 통해 개인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여하신 고유한 소명과 비전을 발견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예배는 예수전도단 화요모임, 딜리버리 프로젝트 등 다채로운 워십팀이 인도하는 뜨거운 찬양 예배를 통해 열정과 감동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청년 예배자들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깊이 경배하며, 영적인 충만함과 믿음의 굳건함을 경험했습니다. 예배 단상 앞으로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는 청년들의 모습은 깊은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하나님 꿈 안에서 하나 된 세대들

이러한 은혜로운 시간 뒤에는 묵묵히 헌신적으로 섬기는 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곳곳까지 마다하지 않은 이들의 헌신 덕분에 컨퍼런스는 더욱 풍성하고 따뜻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위임목사님께서서는 정성껏 준비하신 간식차를 선물하며 청년들을 격려하고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훈훈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번 컨퍼런스에는 지역 청년들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인 아이들,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까지 연합하여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꿈' 안에서 하나 됨을 경험했습니다.

청년들의 예배로 빛난 하나님의 꿈

2025 드림 컨퍼런스는 뜨거운 감동과 새로운 헌신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청년 세대들이 하나 되어 연합하고,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는 뜨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탁월한 강사들의 깊이 있는 메시지, 열정적인 워십팀의 찬양 인도, 그리고 뜨겁게 예배드리는 청년들의 모습은 현장을 뜨거운 은혜의 도가니로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품은 하나님의 꿈이 삶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여 더욱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빛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시한부 엄마와 하루하루를 보내며

글 구숙정 권사

나는 지금, 죽음과 마주하고 있는 시한부 인생의 엄마와 함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희귀병을 앓고 있는 엄마를 간병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기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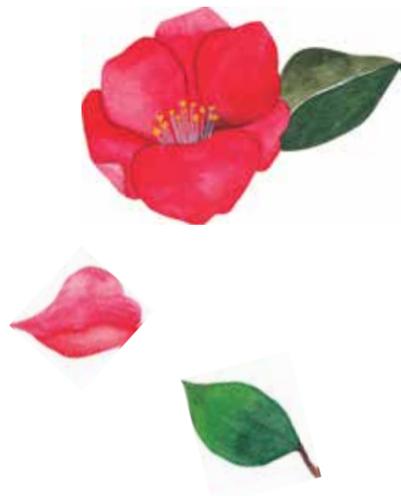
나는 성장기 때 엄마에 대한 미움이 있었다. 엄마에 대해 그랬던 마음을 죄책감으로 남겨두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난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엄마와 함께 마지막 사랑을 나누고 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나에게 과분한 선물임을 깨닫는다.

2024년 4월 23일. 엄마의 검사 결과가 나왔다. 엄마의 병은 뇌에서 온 것으로 백만 명 중에 한두 명 걸린다는 희귀병이라고 했다. 의사는 앞으로 8개월에서 1년 정도 살 수 있을 거라고 했고, 약도 없으며 병원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엄마에게 그 사실을 그대로 말할 수가 없었다.

그해 7월, 나는 엄마가 혼자 계시는 제천으로 내려갔다. 엄마는 심리 불안, 인지 저하, 우울증, 망상, 초조, 공격성, 수면장애, 배회, 소뇌 실조증, 균형장애, 보행장애 등 치매와 함께 나타난다는 거의 모든 증상들을 보였다. 그런 엄마와의 동거가 시작되었다. 1년이 지난 지금, 엄마는 생리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저 앉거나 누워만 있는 아기가 되었다.

사실 그때 난 섬김사관학교 교육을 받던 중이었다. 매주 토요일 일산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피택에 대해 해답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었고, 감격과 감사로 교육을 마칠 수 있었다.

지난 겨울은 너무나도 춥고 외로운 시간이었다. 엄마의 인지능력은 점점 떨어져 더욱 안 좋아졌고, 신경계 쪽도 급격히 나빠져 갔다. 엄마는 앉고 서고 눕는 것마저 힘든 상태가 되었다. 나는 이제 지치기 시작했다. 내가 환자가 되는 것 같았다.



※ '리조이스기타선교단'이 엄마가 다니시는 주간보호센터로 위로공연을 왔다. 나도 함께 기타를 연주하며 엄마께 작은 위로를 드렸다

※ 공연이 끝난 뒤, 리조이스기타선교단과 사진을 찍은 엄마의 얼굴에 오랜만에 따뜻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2025년 1월, 목장 식구들과 『어, 성경』 1년 1독을 시작했다. 힘든 상황이었지만, 나는 매일같이 그날의 분량을 읽어냈다. 그리고 묵상하며 기도했다. 그것을 매일 목장 단독방에 나누며 큐티를 했다. 하나님은 나에게 또 이렇게 힘을 주시며 이겨내게 하셨다.

엄마는 자꾸 기억을 잃어가고 이제 말도 잘 못 하신다. 그렇게 몸은 자꾸 굳어지지만 나를 알아보고 찬양과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신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에는 세례를 받으셨다. 가시는 날을 앞두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내 평생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생각한다.

꽃피는 2025년 봄이 왔다.

4월 8일 화요일이다. 엄마는 컨디션이 좋을 때는 주간보호센터에 가시곤 했다. 어느 날 그곳에 거룩한빛광성교회 '리조이스기타선교단'이 봉사를 왔다. 봉사단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을 전했다. 엄마는 나와 단원들의 기타 찬양을 들을 때 너무나도 기뻐하셨고 어느 때보다도 더 초롱초롱한 눈과 행복한 얼굴을 하고 계셨다. 엄마가 지금 이런 순간들을 오래도록 잊지 않기를 기도하며, 일산에서 이곳까지 먼 길 달려온 단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우리는 모두가 시한부 인생이다. 그리고 좋은 죽음이라는 정답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이제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조금은 알 것 같다. 이 자리를 빌려서 엄마와 나를 걱정해주고 기도해 주신 거룩한빛광성교회 공동체에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 다시 나는 하나님 사랑에 빛진 자가 되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25년 4월 30일

주무시는 엄마를 바라보며

수어

수어통역 장지원 권사(거룩한빛광성교회 수어통역팀)

안녕하세요.
거룩한빛광성교회 수어통역팀이 봉사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짹짹!

은혜



믿음



소망



사랑



문화
&
독자 마당

당신의 정원

작가 노트

바람이 빚어낸 물살의 파장,
그 물결의 선 위에서 나는 호흡한다.
금정산 자락이 바다와 하나 되기 위하여 길이
된 온천천,
자연은 결눈질을 허락하질 않아
물은 흘러가며 그 시간의 흔적을 돌 틈에 묻고
잠들지 못하는 외가리와 청둥오리의 가슴을
뛰게 한다.

나의 호흡과 들숨, 심장박동, 피와 공기가 내
몸을 지나가며
나는 우주의 일부가 된다고 휘트먼은 말했다.
나는 이 정원의 물결과 생명 속에서 하나님이
빛어내신
자연의 일부가 된다.
물 위에 빈 나뭇가지가 드리워질 때 물결의 메
아리 속에서 당신을 기다린다.



The story of creation - 당신의 정원 1 / 90X117cm / mixed media / 2025



지경희 작

파이프오르간 연주자, 김계원 전도사 (상) 오르간, 웅장한 하나님의 노래

글 김형수 기자

1. 파이프오르간은 어떤 악기인가요?

파이프오르간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사용된 건반악기입니다. 여러 길이의 관을 음계적으로 배열하고, 바람으로 압축된 공기를 건반으로 연결된 파이프로 보내어 소리를 내는데, 파이프오르간을 모방한 리드오르간이나 전자 오르간도 '오르간'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발 건반을 가진 것이 특징이며, 발 앞부분과 뒤꿈치를 이용해 건반을 누르는데, 소리가 나는 원리는 손건반과 같습니다. 파이프오르간은 1924년 서울 명동성당에 설치되면서 한국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이후 교회와 콘서트홀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 독일 파사우의 성 스테판 성당 내 초대형 파이프 오르간

2. 파이프오르간을 선택한 이유는?

어릴 때부터 쪽 찬양대에서 찬양하며, 예배 시간마다 예배당에 있던 오르간(비록 전자 오르간이기는 하지만) 소리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앉은 찬양대 소프라노 자리가 오르간 바로 뒤쪽에 있어서, 더욱 오르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찬양대에 설 때마다 '나도 예배 시간에 오르간을 연주하며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었고, 그 마음은 구체적인 기도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여러 악기를 배우며, '음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라고 기도했는데, 자연스럽게 오르간을 선택하면서 서원기도를 한 부분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 영락교회 베다니홀 오르간 연주자를 마치고

3. 연주자로서의 전도사님을 소개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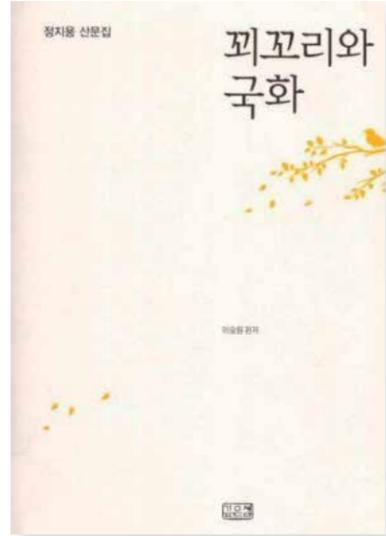
대학(교회음악과 오르간 전공) 졸업 후 유학을 준비하여 미국 대학원에 입학 허가를 받았으나, 학생비자가 나오지 않아 유학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 후 방향을 좀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주님은 그 방향의 시간을 거치게 해서 저를 더 단련시키셨고, 그냥 연주자보다는 주님의 연주자로 훈련을 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음악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25년 넘게 여러 교회에서 예배 반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르간은 예배 반주 시 많이 활용되는데, 개인적으로 전문 오르간 연주자보다는 예배 오르간 반주자 자리가 더 끌리고, 앞으로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 김계원 전도사

정지용 「피꼬리와 국화」 솔바람 새소리

글 김은숙 권사(수필가, 필명 김지형)



정지용 시인의 수필에서는 시향詩香이 난다. 그가 구사하는 향토적이고 아름다운 시어들을 읽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게 시의 정취에 빠져든다.

주로 서정적이고 모던한 시들을 많이 발표한 시인은 평론가들로부터 한국 현대시의 실질적인 완성자라고 평가받는다. 그가 첫 시집을 간행하자 “문단 일부에서는 폭포와 같은 찬사가 쏟아졌다.”라고 시인 이해문(1911-1950)은 회고했다.

그의 수필 「피꼬리와 국화」는 ‘서울서 피꼬리 소리를 들으며 살게 된’ 예기치 않았던 기쁨에 시인다운 감흥을 수필로 완성한 걸작이다.

예나 지금이나 속인俗人들은 “땅 한 평에 얼마나 오르고 내린 것이 큰 관심거리인데” 시인은 그런 것엔 생각조차 없고 오직 자연의 소리와 주위 환경에 마음이 들떠 있다.

“이삿짐을 옮겨다 놓고 한밤 자고 난 바로 이튿날 햇살 바른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기왓골이 옥玉林 듯 짜르르 짜르르 울리는 신기한 소리에 놀랐다. 피꼬리가 바로 앞 나무에서 우는 것이었다.”

이사 간 집은 ‘새문 밖 감영監營 앞에서 전차를 내려 한 십 분쯤 걷는’ 동네라고 하니, 짚어보면 서대문구 충정로와 신문로 사이, 요즘의 북아현동 언저리였을 것이라 어렵된다.

빌딩과 아파트들이 들어선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어렵지만, 그 시절엔 피꼬리가 울고 까투리가 날고, 장끼가 산이 찌르릉 하도록 울어대고.... 그뿐인가. 외진 곳에서는 슬픈 전설을 지닌 며느리새가 숨어서 우는 마을이었다니 그 기쁨이 얼마랴! 아무리 옛날이라고는 하나 그 일대가 그 정도였나 의문이 들었으나 아마도 지척에 안산鞍山(일명 무악산)이 있어서가 아니었나 나름대로 추측이 가능하다. 동저고리 바람으로 문밖을 나서면 아늑하고 서럽고 즐겁고 편안한 솔바람 소리에 문밖으로 나온 값이 아깝지 않다고 했으니 환경에 안분지족安分知足했음을 알 수 있다.

“머리 위에 구름이 피명지명 하고 골(골짜기)에 약물이 사철 솟아 주지 아니하는가. 삐죽채꽃, 엉경취 송이, 그러한 것이 모두 내게는 꿈쩍한 것이다. 바람이 자면 노란 보리밭이 후끈하고 송진이 고여 오르고 빠꾸기가 서로 불렀다.

아침이슬을 흘리며 언덕에 오를 때 대수롭지 않게 흔한 달기꽃 꽃이라도 하나 업신여길 수 없는 것을 보았다.”

거의 한 세기 전의 풍경이지만 서울 시내에 이런 마을이 있었다니 엄청난 격세지감을 느낀다.

첫날 피꼬리 우는 소리에 놀라 뛰쳐나갔을 때, 부인도 부지깽이를 든 채로 황황히 나오든지 해야 ‘피꼬리가 바로 앞 나무에서 우는 보람이 설 것인데’ 부인의 반응은 시원치 않은 듯, 사람들이 이렇듯 무딜 줄이 있으랴 하는 탄식에서는 해학적인 그의 일면도 보여진다.

예로부터 피꼬리는 그 울음소리가 자지러질 듯 청아하고 아름다운 뿐만 아니라 생김새도 노란색에 검은 띠를 두른 모습이 귀여워 우리 민족의 사랑을 받아왔으며 회화, 민요, 문학 등 여러 예술작품의 소재로 많이 쓰였다.

일찍이 고구려 유리왕이 나무 밑에 앉아 피꼬리가 정답게 노니는 모습을 보고 외로운 마음을 달래며 「황조가黃鳥歌」를 지었고 춘원 이광수는 「피꼬리 소리」라는 수필에서 ‘피꼬리는 가장 목청 좋은 가객’이라 칭찬하며 병석에 누워서 피꼬리 소리를 들으며 “나는 죽어서 새로 태어난다면 피꼬리로 태어난다.”라고도 했다.

시인이 동심으로 돌아가 한 번은 닭이꽃꽃을 모아 으깨어서 잉크를 만들어 ‘피꼬리가 앞 나무에서 운다.’는 자랑을 친구들에게 써 부쳤다. 한 친구가 멀리 장성에서 겸사겸사 집알이(이사한 집에 인사로 찾아옴)로 올라왔다. 그러나 그날따라 한껏 자랑하고 싶은 주인의 마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알미운 피꼬리는 새침하고 울지 않는다. 기대에 찻던 벗은 그저 웃기만 했다. 그 순수함이 읽는 재미를 더한다.

서울 토박이인 나는 수십 년 살던 서울을 떠나 경기도 외곽으로 집을 옮기게 되었다. 어느 날 귀갓길, 자유로 너머 임진강 일대의 하늘가를 일몰 직전의 마지막 빛을 발하는 거대한 태양이 질

은 홍시 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황홀함에 전율을 느끼며 옆자리에 앉은 여학생에게 “저기 좀 봐요.” 하고 나도 모르게 소리치니 그 학생은 웬 호들갑이냐는 듯 무심히 고개를 돌려 나를 무색하게 했다. 경이로운 것을 보면 소리치고 싶고 누군가와 그 감정을 나누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그 여학생의 무덤덤한 반응에 스스로 얼굴이 붉어졌던 기억이 새롭다. 정지용 시인이 이사 온 첫날 아침, 무딘 부인의 반응이 서운했을 심정에 공감이다.

나는 어제 저녁 일찍 어두워지는 산허리에 진홍의 노을이 마치 산불이라도 난 듯 찬연히 불타고 있어 추위도 잊고 한참 동안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시인과는 반대로 나는 이 외곽으로 와서 자연이 주는 선물에 호사를 누리고 있다.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를 자연으로부터 치유 받으며 비록 서울에서 밀려났어도 감사하며 살고 있다.

피꼬리가 우는 철이 오면 장성 벼를 다시 부르겠노라고 한 시인이 그 후로 벼를 다시 초대했는지는 알 수 없다.

6.25 전쟁 중 행방불명 된 그의 소식을 다시는 알 길이 없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즈음 녹번동 거리에서 어느 제자가 마지막 모습을 보았다고 증언하는 다큐멘터리를 TV에서 본 기억이 새삼스럽다.

이제 계절이 바뀌어 여름새인 피꼬리, 며느리새는 울지 않고, 꽃도 잎도 이물고 산국화도 마지막 스러지니 솔바람 소리가 역세어 간다.

“꽃도 조선 황국은 그것이 꽃 중에는 새 틈에 피꼬리와 같은 것이다. 내가 이제로 황국을 보고 취하리다.”

새들도 떠나고 솔바람 소리도 역세어 가는 이 계절에 황조(피꼬리) 대신에 오상고절傲霜孤節 외로운 황국黃菊을 벗하며 지내겠다는 작가적 대유代喻의 발상이 절묘하다.

대한민국 종합 박물관 - 강화도 강화산성

글 & 사진 이수인 기자

강화도에서 찾을 수 있는 유구한 우리나라 역사

강화도에는 '유구한 우리나라 역사'가 참 많이 남아있다. 타제석기 등 선사시대 유물에서부터 청동기시대의 표지유물인 고인돌 등이 많이 발견되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세계적 자산들이다. 단군에게 제사를 올리던 제단인 참성단이나 관방유적 강화산성에, 해안선을 따라 분포된 많은 진-보-돈대 등 진지들은 우리에게 우리 옛 역사를 전해주는 살아있는 자료들이다. 강화는 백제나 고구려, 신라가 모두 중요한 거점으로 인식했다. 그 뒤 고려와 강화의 관계는 이보다 더 밀접했다. 우선 수도인 개성(물론 당시는 개경)과 이곳의 거리가 매우 가깝다는 것이 포인트인데, 강화도 정북방으로 예성강을 통해 바로 이어지는 교통 조건이라 국방이나 교역 등 여러 측면에서 교통량이 많았다. 고려 왕조는 대몽항쟁기에 수도를 개성에서 강화로 옮겨와 39년간 머물렀다. 수전에 약한 몽골군의 약점을 이용

한 전술적 선택이었고, 이로써 강도(江都), 또는 심도(沁都)라는 강화의 다른 이름이 생겨났다. 조선에서도 강화는 중시되었다. 개국 이래 도호부나 유수부로 특별 관리되면서, 서해안을 경유하는 조운의 핵심지로 중시되었다. 그래서 조선 초기에 이미 고려 때의 축성을 되살린 성곽복원이 이루어지고, 고려궁지는 다시 조선의 유수부 관아로, 즉 지금의 강화산성과 유사한 형태로 정비되었다.

강화산성과 고려산성의 연관 및 차이

앞서 언급대로, 강화산성은 고려궁을 포함한 고려 시대 축성을 기반으로 했다. 즉, 고려 때 쌓았던 원래 토성(고려산성)이 고려가 몽골에 항복하면서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조선에 들어와 숙종 37년인 1711년의 공사를 통해서 다시 쌓은 성이 지금의 모습으로 남았다.



강화산성 동쪽 외곽 공중에서 부감한 동문(강화군청 제공)



강화산성 남장대 상공에서 북동쪽의 부감

강화도에서 북동쪽 방향을 바라본 풍경. 무인도인 유도가 중앙 전방으로 보이고, 그 뒤에서 개성에서 내려오는 예성강 물이 한 발 먼저 합수된 임진강 한강 물과 다시 합쳐진다



강화도를 침략했던 열강들

19세기에 접어들어 강화는 또다시 열강들의 침략 앞에 혹독한 시달림을 겪는다. 프랑스와 미국과 일본 등이 차례로 강화도를 침략했고, 마구 유린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병인양요(1866)와 신미양요(1871) 등이다.

강화산성 둘러보기

강화산성을 둘러보기 위한 들머리는 다양하다. 먼저 공용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고려궁지를 둘러보고, 동서남북 어느 문이든 시작해서 크게 산성을 한 바퀴를 돌면 된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고려궁지는 다음으로 미루고 성곽만 따라 한 바퀴 돌아도 된다.

강화산성의 남문은 안파루(晏波樓)이다. 숙종의 처남인 민진원(閔鎭遠)이 강화유수로 있을 때 쌓았다. 남문에서 남산을 타고 오르는 산성 답사는 등산과 비슷한 난이도를 보인다. 산등성이를 타고 오를 때 경사도가 만만치 않다. 남장대는 남산 정상 부에 있다. 산성 전체에서 가장 높은 지점이다.



강화산성의 최중심이며 내성부라 할 수 있는 고려궁지 안에서도 가장 중심에 위치한 외규장각 건물. 이 건물은 정조 6년에 세워졌으나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 군에 의해 보관품들과 함께 약탈 파괴되었다가 2002년에 건물만 복원되었다 (강화군청 제공)

성벽을 따라 한참을 내려와 서문 가까이에 도달하니, 아담한 홍예식 수문이 나타난다. 강화산성의 최저부를 동서로 관통하는 동막천 수문이다. 다시 서문 안쪽으로 꽤 너른 공간이 보이는데, 이곳은 연무당 옛터다.

그다음, 서문에서 북문에 이르는 경로는 아주 복잡하다. 급격하게 성벽이 흐려지면서, 북문까지의 구간이 성벽의 형태와 기능을 거의 잃어버렸다. 그러다가 돌연 북문이 나타난다. 근래에 복원한 진송루(鎭松樓)다.

북문을 통과하면 다시 성벽이 동쪽 언덕으로 올라간다. 그러나 그 지점에 있었던 북장대는 아직도 복원되지 못했다. 산 정상을 지나면서 성벽은 각도를 꺾어서 힘겹게 동문 쪽을 향해 내려온다. 그러나 거기부터는 대체로 나중에 세워진 건물이나 농지 축대 등으로 성벽의 자취가 많이 흐려졌다. 물론 강화중학교 남쪽에 이르러 동문인 망한루(望漢樓)를 만날 수 있으나 이후로도 성벽은 위세를 잃어버렸다. 겨우 자취를 찾는 것으로 한참 이어지다가 출발지 남문에 이르게 된다.

강화도 맛집 소개

강화에는 맛집들이 참 많다. 그것들을 서열화하거나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맛집의 분포가 집중된 장소 두 곳을 소개하는 것으로 소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한다.

대체로 전통적이고 갓추어진 음식 맛을 찾는 경우라면 강화읍의 중심인 강화시장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군청이 위치한 구시가 쪽에는 이름난 전통 맛집들이 많이 모여 있다. 반면 강화도 특산의 서민적 입맛을 좋아한다면, 강화풍물시장 쪽을 추천하겠다. 밴댕이 요리, 족발, 찌뽕 등 서민적 취향에 어울리는 다양한 음식들을 즐길 수 있다.



강화산성의 남문인 안파루. 안파루 현판은 성 안쪽에 걸려 있고, 성문 밖에 걸린 현판은 강도남문으로 되어 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혜주 권사님께

글 박혜자 권사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예배당에 첫 음을 올렸던 그날부터 어느덧 2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가시 성전 시절, 권사님의 손끝에서 흘러 나왔던 맑고 따뜻했던 선율은 성도들의 마음을 깨우고 새벽기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 주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겨울의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도, 여름의 무더운 열기 속에서도 결코 흔들림 없이 건반을 지키시며 기도로 준비해 오신 권사님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말씀 선포 전 잔잔히 이어지던 전주는 우리들 심령을 정결하게 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첫걸음을 더욱 경건하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교회 안팎의 크고 작은 변화 속에서도 한결같이 애써 주신 권사님의 헌신 덕분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소중한 경험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귀한 사역 위에 베푸신 사랑과 수고를 기억하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권사님의 기도와 음악으로 더욱 풍성해질 예배와 공동체를 기대합니다. 건강 잘 돌보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권사님과 가정 위에 늘 충만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무려 22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변함없이 새벽예배 때마다 피아노로 예배를 섬겨오신 이혜주 권사님. 그 헌신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며느리를 들이고 처음으로 맞이한 어버이날의 감회

글 박미경 권사

4월 27일, 우리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아들은 통신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늘 자격증 공부와 다양한 취미 활동에 열정을 쏟는 아들을 보며, 자연스레 "결혼에는 관심이 없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우리 가족도 각자 하고 싶은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좋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아들의 친구가 집에 와서 외국인 며느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안 된다.'고 대답했지요. 그 질문엔 배경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가 외국인이었던 것이지요. 그녀는 한국 대기업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한국어를 전공한 참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대화도 잘 통하고 성품도 좋아 보여서 저희는 첫 만남에 이미 마음에 들어 허락하게 되었죠.

며느리는 네 자매 중 둘째인데,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5년 전, 3년 전에... 며느리가 안쓰럽고 측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니 그리운 마음에 우리를 더 살갑게 따르는 모습이 고맙고도 짝합니다.

올해 어버이날은 우리 부부에게 참 특별한 날이었어요. 늘 시부모님을 먼저 챙기다 보니, 우리 부부의 어버이날은 그냥 스

쳐 지나가는 날이었거든요. 시아버님 생신과 어버이날이 4월과 5월 사이에 겹쳐 있어서, 저희에게는 늘 유일무이한 '어버이날'이었죠.

아버님은 몇 해 전 돌아가셨지만, 어머님은 가까이 계셔서 어버이날 늘 찾아보었는데, 작년 봄 요양병원에 들어가시면서부터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어요.

이번 어버이날은 처음으로 "아, 우리도 어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월에 해외 출장을 다녀온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부산에 다녀오며 기장 미역, 다시마, 남편이 좋아하는 명품 막걸리, 꽃과 케이크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해 왔어요. 정말 감동이었죠. 며느리가 직접 차려준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예전엔 그냥 아들이 주는 마음이 고마웠다면, 이번에는 처음으로 부모로서 '대접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어버이로 승진(?)한 기분일까요? 괜히 뿌듯하고 따뜻했습니다.

애들아, 이제 우리도 어버이날을 제대로 느끼며 살아도 되는 거겠지? 정말 고마워. 사랑해!



1. 사랑과 감사가 교차하는 감동의 순간
2. 아들 내외가 선물한 꽃과 케익



정겨웠던 ‘작은도서관’

글 김진옥 권사

일산광성교회 현관문을 들어서면 맞은편에 자리 잡고 있던 ‘작은도서관’. 교회 안에 도서관이 있다는 사실이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문처럼 다정스럽게 느껴졌으며, 교회 건물의 붉은 벽돌이 주는 소박함과 잘 어울리는 명칭이라 생각되었다. 그곳은 『광성겨자씨』 편집실로도 이용되었음에 또 다른 추억이 어린 장소로 떠오른다.

‘작은도서관’은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환으로 1998년 여름, 7월에 개관되었다. 지금이야 많은 교회들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선구적이라 할 정도로 획기적인 일이었다. 그 선구적인 공로를 인정받아 기독교출판협회가 주관하는 문서선교회의 날 기념대회(2002년 10월 21일)에서 모범도서관으로 선정되는 기쁨도 있었다. 이 내용을 비롯한 ‘작은도서관’의 면면이 조선일보 지역란에 게재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교회의 3대 목표 중 섬기는 교회의 모습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 있다.

‘작은도서관’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었다. ‘어린이 코너’는 인근 주민들, 특히 젊은 엄마들에게 좋은 반응과 호응을 얻었으며, 어린이 도서는 전체 도서의 30%에 달했다. 그리고 얼마 후, ‘작은도서관’은 교회의 공간 활용에 따라 울동초등학교 앞 ‘십대들의 등지’ 건물 1층으로 이전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도서지기들은 오전과 오후, 각 4시간씩 근무했다. 물론 모두 봉사자들이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일정 시간에 봉사의 자리에 선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열심을 내었고 좋은 책을 구입하고자 노력했다. 그렇게 성장한 ‘작은도서관’은 교회가 덕이동으로 이전하면서 ‘북카페’라는 이름을 달게 되었다.

참고 기록한빛광성교회 20년사



BOOK AND BOOK

정리 강혜미 기자



배우자를 배우자

저자 : 박호근, 옥에스터 | 236쪽 | 16,000원 | 출판사 : 예영커뮤니케이션
결혼은 그야말로 난이도 ‘최상’을 자랑하는 험난한 코스이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험난한 코스를 잘 통과할 수 있을지 해매는 이들에게 이 책은 현명한 솔루션을 제시한다. 특별한 기술이 아닌 서로에 대한 이해와 정서적 친밀감, 대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그리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난코스를 통과하는 방법을 이해시킨다. 행복한 부부가 되고 싶다면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



위로, 성도가 살아가는 힘

저자 : 조태성 | 208쪽 | 14,000원 | 출판사 : 조이북스
신앙생활이 지치고 고단할 때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위로’이다. 몸과 마음이 지쳐 연약해진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건네는 깊은 위로를 열두 편의 설교를 통해 전한다. 성경 속 인물들 역시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지쳐있던 순간들이 있었다. 책 속에서 그들의 걸음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셨는지를 깨닫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삶을 허비하지 말라

저자 : 존 파이퍼 | 역자 : 전의우 | 312쪽 | 22,000원 | 출판사 : 생명의말씀사
이미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삶을 허비하지 말라』가 새 옷을 입고 출간되었다. 개정증보판의 내용과 더불어 감각적인 스무 컷의 일러스트가 더해져 기존의 독자층에 더하여 청소년과 청년까지 폭넓게 아우른다. 매일 바쁜 삶을 살아가지만 무언가 공허함을 느끼고 있다면, 삶의 의미와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 이 책이 필요하다. 저자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가치 있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크로스로드 태국 단기선교 이야기

글 이해님 전도사

2025년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크로스로드와 여섯 개의 교회가 연합하여 태국 최북단 치앙쿡군으로 단기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치앙쿡군 위앙목 마을의 위앙목 교회에서 복음 전도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첫날, 출발부터 항공 스케줄 문제로 긴장감이 감돌았으나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위앙캄 호텔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첫날부터 선교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튿날은 이른 아침부터 미소를 지으며 복음의 씨를 뿌리는 전도 사역과 예배 초청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오후에는 팀별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미용팀에서는 주민들을 위해 커트 봉사를 실시했고, 풍선아트팀에서는 예쁜 풍선으로 아이들과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페이스 페인팅팀은 얼굴에 예쁜 그림을 수놓아서 주민들의 마음을 열게 했으며, 종이공작팀은 손으로 함께 만드는 활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마약 갱생원, 아카족과 몽족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준비한 위문물품을 전달했고 기도와 눈물로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했습니다. 특히 몽족교회에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정에 없던 헌금 시간을 통해 물질을 흘려보내기도 했습니다. 성령께서 이와 같은 헌신을 이끌어내셨습니다.

≍ 미용팀의 커트 봉사



≍ 마지막 밤, 예배 후 단체 사진

마지막 날은 주방팀의 섬김 아래 어미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배불리 먹이는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잘 차려진 밥과 반찬에 디저트까지 차려진 풍성한 식탁은 단순히 음식을 넘어서서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선물도 엄청나게 준비했는데, 아이들 얼굴에 환한 기쁨이 번졌습니다. 저녁예배에서는 복음 초청을 통해 모인 60명 넘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한 듯한 밤이었습니다.

이번 단기선교를 통하여 복음은 말뿐만 아니라 음식 한 끼, 풍선 하나, 그리고 눈물의 기도로도 전해질 수 있음을 모든 팀원이 경험했습니다.

크로스로드와 선교팀은 현지 교회에서 신학생이 되기로 결단한 '원'이라는 청년을 매월 후원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불교 국가인 태국에서 원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길 기도합니다. 위앙목 지역은 부족한 물, 도둑, 척박한 마을 인심 등 쉽지 않은 조건을 가진 선교지입니다. 그렇지만 위앙목교회는 기독교 중국어학교를 설립해 믿음의 인재를 양성하는 선교 교육기관으로 나아가려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민족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 소수부족 교회 방문



≍ 예배 후 아이들과 함께



≍ 아이들과 함께한 풍선아트



≍ 현지인 전도사역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고, 행복하며 선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거룩한빛광성교회 『겨자씨』 편집부입니다. 『겨자씨』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복음 편지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편지 속에 아름답게 담길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동행을 부탁드립니다.

1.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입니까?

2. 아쉬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3. 다음호의 『겨자씨』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위의 내용을 작성하신 후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아래의 『겨자씨』 담당자에게 전송해 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 종류
시, 수필, 기행문, 사진, 그림, 서예, 만화, 신앙 간증, 사역 소개 등

주제
자유롭게

원고 분량
A4 용지 1장 이내, 10point

원고 마감
수시로

보내주신 글이 『겨자씨』에 소개되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겨자씨.

2025 SUMMER VOL.55

보내실 곳

1023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956
거룩한빛광성교회 『겨자씨』 담당자 앞
jye3315@naver.com
010-2579-4687

등록일: 2010년 1월 13일 통권 55호
등록번호: 고양 라00082
발행인: 광승현
발행일: 2025년 7월 6일
인쇄: 천광인쇄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956
전화: 031-929-3347
중고등부 취재기자: 최아인, 태경환, 전하빈, 최은우
청년부 취재기자: 조희성, 고예님, 김다빈
장년부 취재기자: 김용기, 전영숙, 김형수, 정은숙, 우주희,
박길환, 임보미, 김은숙, 강혜미
사진기자: 이종수
편집: 이수인
책임편집: 조희경
표지 및 본문 디자인: 조혜리, 장예지
편집장: 전영의



소통과 섬김이 있는 삶

메주꽃 요양원

- ☑ 숲으로 둘러싸인 쾌적한 생활 공간
- ☑ 실내외 CCTV, 자동 대문, 자동개폐출입문, 넓은 주차장
- ☑ 소수 인원으로 가정 같은 아늑한 분위기
- ☑ 요양시설 전문 영양사의 균형 잡힌 식단
- ☑ 요양기관전문 협력병원 지정으로 촘촘한 의료서비스 구축
- ☑ 자유로 서울-문산고속도로 내포 IC 2분 거리
- ☑ 가정방문간호사, 상주 간호 요원 배치
- ☑ 계약 의사 방문 진료(2, 4주 수요일)

프로그램



치매 프로그램

- 노래교실
- 미술교실
- 이야기교실

여가 프로그램

- 놀이교실
- 실버체조
- 음악감상

인지 프로그램

- 학습지 활동
- 그림 그리기
- 색칠하기

블로그 https://blog.naver.com/meju_nursinghome

주소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현말길 142

전화 031)953-9935, 010-9794-9879

www.15779177.co.kr

진료내용

척추·관절·통증 치료



척추·관절·통증치료

든든한병원



든든한병원에서 여러분의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료/내/용

- 정형외과
- 내과
- 건강검진
- 마취통증의학과
- 신경외과
- 가정의학과
- 영상의학과

진료시간 안내 ※ 일요일·공휴일은 휴진

- 평 일 : 오전 9:00 ~ 오후 5:30
- 점심시간 : 오후 1:00 ~ 오후 2:00
- 평일야간진료 : 오후 5:30 ~ 오후 7:30
- 토요일 : 오전 9:00 ~ 오후 1:00
- 내과/건강검진 : (평 일) 오전 8:00 ~ 오후 5:00
(토요일) 오전 8:00 ~ 오후 12:0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 2로 60 (덕이동 1551)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규정 제 150604-증-75298호

일산서구 하이파크 2로 60

대표번호 | 1577-9177 |